

리아호나

라틴아메리카의 개척자들, 16쪽

인생에서 나아갈 길을 택하십시오, 42쪽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경전 구절, 50쪽

황소와 성전, 68쪽



빅 토르 바스케즈(위)와 루스 로페즈 앤더슨(앞 표지)은 최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Mi Vida, Mi Historia* 라는 전시회에서 감동적인 개종 이야기와 간증을 나눈 스물네 명의 라틴 아메리카 후기 성도 중 두 사람이다. 16~21쪽에서 그 스물네 명 중 아홉 명의 후기 성도들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본다. lds.org/churchhistory/museum/exhibits/mividamihistoria에서 전시회 내용 전체를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볼 수 있다.





시온의 희망, 미로슬라바 멘센-베자코바

19세기 중반, 많은 후기 성도들은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로부터 수년 전인 1831년 8월 1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성도들에게 그와 관련된 말씀을 했다. 조셉은 그때 미주리 주에서 맞이할 미래와 서쪽을 향한 마지막 이동에 대해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많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그 날이 오나니,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 마음에 간직해 두고 이후에 올 것을 받을지어다.”(교리와 성약 58:4~5)

이 그림에서 우리는 끝까지 충실했던 성도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신앙으로 전진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평화의 정신을 복돋는 각국 여성들, 에머 엘레베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나, 결심했어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에 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특집 기사

- 16 Mi Vida, Mi Historia
라틴아메리카 후기 성도들 열 명의
신앙과 개종 이야기
- 22 부름에 응하는 신앙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개척자들이 신념으로 불모지에
정착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 29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바라 톰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성
- 32 신앙의 섬: 근면에 관한 이야기
애덤 시 올슨
코일라 부부가 사는, 떠다니는 섬은
가족을 위해 영적으로 증진하려는
그들 부부의 노력을 실제로 보여
준다.
- 36 물이 두렵지 않아요
애덤 시 올슨
요세프는 침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잠기는 것이 겁이 났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생수를 가득 들이키며
매튜 힉스
- 12 우리의 믿음: 일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 14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라모나 더튼
- 15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생 과업
페이홀라니 카우바카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5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올해 난 건
잡초일 뿐이야. 뽑아내거라
몽 포울센

표지
앞 사진 촬영: 마크 제이 데이비스,
뒤 사진 촬영: 켄트 마일스.



42

42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본 지 킷치 장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영감을 받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산불 진화
소방대원들의 이야기.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마차

58

46 해답을 찾아서

48 포스터: 험담

49 우리들 공간

50 나는 어떻게 아는가: 8월에 답이
있었다
안젤리카 넬슨

52 영광스러운 개척자 유산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우리는 초기 개척자들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4 인도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다
찰스 큐위시 장로, 캐럴 큐위시
자매
인도 남부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청년
성인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더는 일을 도왔다.

56 선교 임지에서: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이었다
안드레이 보제노브

58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며
뉴질랜드의 젊은 수영 유망주는
예기치 않은 아버지의 죽음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68

61 특별한 증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62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 길에 구조해 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조앤 차일드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6 타히티에서 열린 개척자의 날
마리아 티 무디
타히티 어린이들이 개척자의 날을
어떻게 경축하는지 보세요.

67 우리들 이야기

68 부름
코린 류
아이잭, 토러스, 그리고 나부 성전.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74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카드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2011년 7월호, 제48권, 제7호
리아호나 09687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패커, 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폴 피아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굿슨, 요시히코 기구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커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터,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레리 힐라,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리스, 전 핀보로우, 재닛 토마스, 엘리사 첼덴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넨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책임자: 제인 앤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볼 보드,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킵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번 라슨

통 권: 제537호, 제48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일: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유희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11 Vol. 35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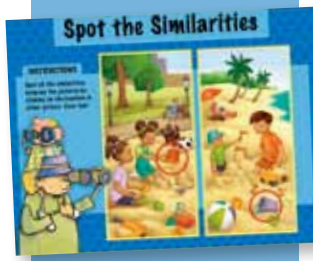
코일라 가족은 티티카카 호수에 떠다니는 섬에 산다. 갈대로 이루어진 이 섬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근면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32쪽 참조)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청소년



열두 살 난 모니카 새일리는 뉴질랜드에서 제일가는 어린 수영 선수 중 한 명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모니카는 "힘든 일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으며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58쪽 참조) www.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사진을 본다.

어린이



www.liahona.Lds.org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5, 32, 39, 58, 67, 70

간증, 16, 38, 50

개종, 16, 40

개척자, 22, 40, 52, 66

결심, 4, 22, 50, 58

경전 공부, 50

교회 역사, 9

금식, 9

매체, 47

물문경, 38, 49, 56

봉사, 29, 54, 61, 62, 68

부름, 14, 68

부활, 39

사랑, 29

상호부조회, 7

선교 사업, 56

성신, 42, 47

성전, 8, 64, 67, 70

순종, 22, 58, 80

신앙, 22, 32

어머니 본분, 15

영감, 42

예수 그리스도, 10, 29

일, 12, 32

친절한 자비, 41

침례, 36, 46

힘담, 4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나, 결심했어

어린 두 형제가 맑고 푸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좁은 절벽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이빙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직접 해 보면 기분이 어떨지 둘이서 자주 얘기를 나누던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 다 다이빙을 해 보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발을 떼려 하지는 않았습니. 절벽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뛰어내리려고 몸을 숙이려 할 때마다 저 아래는 더 멀게만 느껴졌고 용기는 순식간에 사그라졌습니다.

마침내, 그 중 한 명이 절벽 끝으로 한 발을 내딛고 과감히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형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아무래도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발을 내디딘 소년의 몸은 이미 절벽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결심했어!”

물속으로 침범 들어간 소년은 재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절벽 위에 남아 있던 소년도 즉시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둘은 “나, 결심했어!” 하고 외치며 물 속으로 뛰어들던 순간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결심이란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결심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여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할 순간을 만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이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벽에 그냥 서 있을 것인가? 앞으로 걸음을 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발끝으로 물 온도만 알아볼 것인가?’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며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복음을

따른다면 좌절과 불행과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약의 백성들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주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형제들은 신권에 성임될 때 주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창세기 31:16). 이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적인지를 보여 줍니다.

그저 적당한 만큼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간증과 기쁨과 평화라는 축복을 어느 정도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어느 정도만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50퍼센트만 열심히 하고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100퍼센트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개종을 통한 결심입니다.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는 덕성을 기르고 영은 더 강인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 뵈 그날, 그분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태복음 25:21).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일에 전념하겠다고 단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매번 핑계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결심한 사람들은 시련을 직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은 미룰 만한 좋은 이유가 되겠지만 난 성약을 맺었으니까 결심한 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간구합니다.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을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보름달과 같아서 즉시 지키지 않으면 날마다 약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진심으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즉 자신에게 내재된 진정한 가능성에 따라 생활할 때 세상이 얼마나 축복받고 훌륭하게 변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이빙할 때 물을 내려다보듯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지점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용기로써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 스스로에게 “나, 결심했어!” 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교 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61쪽)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반원들이 복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다. 그림은 반원들에게 토론하는 원리와 복음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기사를 읽고 복음에 헌신하는 원리를 토론한 다음,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을 그리게 해 본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그릴지 조언해 줄 수 있다.

청소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앨리사 헨스

여름 동안 참여하고 싶은 수업, 워크숍, 여름 캠프 등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 관해 배운 모든 내용이 생각났다. 그래서 주님 손에 이 상황을 맡기고,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내가 그 전해에 일한

직장에서 받은 수표를 발견하셨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어떤 대회에 나가 내가 2등을 하게 되면서, 그때 탄 약간의 상금을 우편으로 받았다. 이 경험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시며 길을 열어 주신다는 큰 간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차고 넘쳤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느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내가 마음껏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활이 “믿는 자에게 본이”(디모데전서 4:12) 되게 하고, 내 일생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어린이

준비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핑계를 대는 대신 옳은 일을 실천합니다.

이 네 아이들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청소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른 아이들이 청소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다섯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갈퀴, 페인트 붓, 사다리, 양동이, 삽을 찾아보세요.





신앙 · 가족 · 구제

성전에 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자 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구주이시며,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경전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받아야 할 의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성전에 갑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주된 목적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주께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장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며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구주를 따라 의롭게 살기 위해 맺는 성약에 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¹

그러나 성전 봉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떤 분을 위한 대리 사업을 행할 때 여러분은 이미 맺은 성약들을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축복을 마음 속으로 다시 굳게 다질 것입니다. …… 거룩한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성약과 의식 안에 있습니다.”²

계속 성전에 오십시오.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면, 축복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머물 것입니다.

바바라 톨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성구에서

이사야 2:3; 고린도전서 11:11; 요한계시록 7:13~15; 교리와 성약 109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방문을 받는 자매들이 “성전에 갈” 결심을 하도록 어떤 경험을 나누면 좋을까?
2. 성전에서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주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나부 성전이 건축되던 시절에 선지자는 자매들이 성전 의식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준비시키고자 교리를 가르쳤다. 1842년에 선지자는 머시 필딩 톰슨 자매에게 엔다우먼트는 “자매님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³

나부를 탈출하기 전에 성전 의식을 받은 후기 성도는 약 6,000명에 달한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성전] 의식을 받으려는 성도들의 열망과, 그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었다. 밤낮으로 나는 성전에서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쳤으며, 하루에 평균 네 시간도 자지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가지 않았다.”⁴ 성전 성약에서 얻은 힘과 권능으로 강화된 성도들은 살던 도시와 성전을 뒤로 하고 미지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성전의 축복”, 리야흐나, 2009년 10월호, 14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에 돌아가기 위해 준비함(1980년), 35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14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299쪽.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앨마서 37:6)

성전 집중 조명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2010년 5월 2일, 이날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헌납된 131번째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은 넓이가 2,617제곱미터로 침례반 하나, 해의 왕국실 하나, 엔다우먼트실 두 개, 인봉실 두 개로 되어 있다. 내부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장엄한 숲과 바다, 하늘을 표현한 초록과 연 파랑과 금색으로 꾸며졌다. 건물 전체를 장식하는 그림과 직물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상징하는 식물인 태평양 층층나무가 그려져 있다.

헌납식 전야에는 1,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문화 행사에 참여했다. “세상을 밝히는 등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공연은 캐나다인들과 그 역사를 담아 냈다. 행사 시작 무렵에



몬슨 회장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캐나다가 전해주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개회 찬송을 캐나다 국가로 변경했다.

헌납식 기도문에서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간구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청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곳을 나설 때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¹



위쪽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침례반, 세부 장식, 해의 왕국실 모습.

주
1. Thomas S. Monson, “Dedicatory Prayer”, ldschurchtemples.com/vancouver/prayer.

금식 일지

금 식 일지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금식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나는 매번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꿀벌반 고문이라는 새로운 부름이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일 침착하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첫 공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을 간구한다.”

금식을 하는 동안 나는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머릿속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인상,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목적과 관계 깊은 성구 등을 적는다.

내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때 그분은 종종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 삶에 두서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그 일들을 기록하고 그 모든 일들이 내 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 깨닫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연결된다. 처음 금식 일지를 적기 시작한 1996년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았다. 나는 금식과 기도에 놀라운 영적 힘이 있음을 간증하며, 금식이 “기쁨과 기도”(교리와 성약 59:14)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레니 하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메리 필딩 스미스

충 실한 후기 성도 여성인 메리 필딩 스미스는 남편이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1838~1839년 겨울 동안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가족을 이끌었다. 폭도들이 집을 덮쳤고, 습격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1844년 6월 27일에 남편인 하이럼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되면서 메리는 남편을 잃게 되었다. 메리와 에머 스미스는 남편인 하이럼과 조셉 스미스와 함께 많은 시련을 견뎌 냈다. 오늘날 메리는 교회 초기 시절의 가장 충실했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존경을 받는다.

메리는 1837년 12월 24일에 하이럼 스미스와 결혼했다. 하이럼의 첫 번째 부인인 제루샤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메리는 하이럼의 어린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거두었다. 하이럼과 메리 사이에도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중 한 아이는 조셉 에프 스미스이며, 훗날 교회 6대 회장으로 지지되었다.

조셉과 하이럼이 순교한 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밸리로 가기 위해 나부를 떠날 무렵 메리도 여행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메리와 가족들은 한 여행조에 배정되었는데 그곳 조장은 메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이 고된 여행에 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형제님보다 먼저 계곡에 도착할 것이며 형제님에게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¹ 여행은 실로 힘겨웠다. 그럼에도 메리와 가족들은 그녀를 못미더워하던 조장보다 하루 이른, 1848년 9월 23일에 마침내 솔트레이크에 도착했다.

메리 필딩 스미스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충실하게 생활했다. 메리는



맨 위: 평원을 건너는 메리 필딩 스미스. 위쪽: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메리 필딩 스미스 집에 모인 조셉 에프 스미스와 가족들, 1910년경.

가난 속에서도 십일조를 바쳤다. 메리가 한 해 동안 재배한 감자 중 십 분의 일을 십일조로 내려 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트한 사람도 있었다. 그 부적절한 제안에 메리는 이렇게 답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제님은 왜 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 제가 십일조를 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십일조를 내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² 메리는 솔트레이크밸리에 농장을 일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훗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존경과 미덕과 진리와 완전함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³

주

1. Don Cecil Corbett, *Mary Fielding Smith: Daughter of Britain* (1966년), 228쪽 참조.
2. 메리 필딩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 인용, *Conference Report*, 1900년 4월, 48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37쪽.

생수를 가득 들이키며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언급된]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그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진지한 기도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십시오. 결점은 버리십시오. 거룩함으로 행하고 계명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수를 가득
들이키십시오.”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풍성한 삶”,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0쪽.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14)

매튜 힉스
복지 서비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깨끗한 물이 부족한 세계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우리는 지역 정부와 주민들과 협력하여 우물이나 샘물 또는 빗물 집수 장치와 같이 깨끗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용수원을 주민들에게 마련해 준다.

이런 물 프로젝트로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히 좋아진다. 깨끗한 물이 있으면 장티푸스와 콜레라, 기타 수인성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상태가 급격히 나아진다. 물을 지고 나르던 부모와 자녀가 그 시간을 취업과 교육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형편도 좋아진다. 수많은 문제를 광범위하게 겪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물이라고 늘 입을 모아 말한다.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장소와 시대는 사람들이 우물에 의지하여 물을 얻던 때이다.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4:14)라고 가르치실 때 구주께서는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영원토록 채워 준다는 가르침도 더불어

주신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하는 것에 관해 가르쳐 준 아프리카 케냐의 한 여성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그 여성을 만난 곳은 그녀가 사는 동네에 우물을 파 준 다음에 열린 축하 행사장이었다. 그분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매일 14킬로미터를 걸어서 물을 길어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우물 때문에 1.6킬로미터만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누리게 될 여러 기회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만약 물을 길기 위해 1.6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하고 나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을 길으러 가기 위해 그녀가 집안일에서 정원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제쳐 놓았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녀는 그 물이 없으면 다른 일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물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물을 길으려면 힘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매일 14킬로미터를 기꺼이 걸어가서 물을 길어 왔다.

가정에 있는 수도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우리는 꼭지를 돌려 물 한 잔을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

언뜻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는 않은지 자못 궁금하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중요한 일을 기꺼이 제쳐 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노력하는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순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점을 안다. 우리가 빈 잔을 들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잔을 가득 채워 주시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워 주신다. 그분은 참으로 생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

무엇이 생수인가?

-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 “생수의 근원[은] ……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니파이전서 11:25)
- 생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수 있다.(요한복음 4:14; 교리와 성약 63:23)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니파이전서 8장, 11장, 리차드 지 스코트,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신앙과 성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43쪽을 참조한다.

생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는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한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는 “생수가 주는 축복”(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3쪽)이라는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1. 생수는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해 준다.
2. 생수는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마태복음 11:28 참조)
3. 생수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요한복음 14:27;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니파이전서 11장 25절을 읽어 본다. 생수의 근원과 생명나무가 어떤 관계인지 토론한다.

일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 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모으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다와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장; 모세서 2장 참조) 그분들의 모범에서 우리는 일이 하늘과 땅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요한복음 5:17; 9:4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창세기 1:26~27; 2:8 참조) 그 후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주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했습니다.(모세서 5:1 참조)

아담과 이브 시대 이래로 일은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 영적, 정서적 안녕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일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녀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주고 잘한 일을 칭찬하면 자녀가 일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녀는 일에 관한 건강한 윤리와 좋은 태도, 기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활력을 채워 주는 활동과 일을 병행한다면 일주일 중 엿새 동안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세상 일을 삼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출애굽기 20:9~11; 교리와 성약 59:9~19 참조)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며 계속 일할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

서 로 돕고 일에 따르는 부담을 나눌 때, 매우 무거운 짐도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1. 부모는 자녀를 돌볼 성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3편 참조)



2.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때 축복을 받습니다.(디모데전서 5:3~4, 8 참조)



3. 먼 친척이라도 힘이 닿는 대로 도와야 합니다.



1. 성품이 강화되고 일하는 기술이 향상됩니다.

일을 하면 그 결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2.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기쁨을 느낍니다.



3. 식 달치 식량과 물, 기타 생필품을 비축한다면 더 잘 준비되고 자립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에베소서 4:28)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155~160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을 참조한다.

사진 출처: 존 루크, 엘튼 시, 앤디슨, 제리 칸즈, 크레이그 다이먼, 로버트 케이지, 하워드 플렛 © F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라모나 더튼

나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 것]”(신앙개조 제5조)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을 통해 배웠다.

남편과 나는 이제 막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고 새로운 와드에 참석하게 되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와드 경계가 바뀌고 와드가 나뉘는 시기였다.

그곳에서 두 번째로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나자 와드 서기가 화요일 저녁에 새로운 감독님을 만나 뵙도록 약속을 잡아 주었다. 화요일에 만났을 때 감독님은 우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 남편을 향해 나를 새로운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 불러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다. 그런 다음 내게도 그 부름을 받아들여졌냐고 물으셨다. 나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결코 부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감독님은 명단 하나를 주시며 보좌들과 서기를 고른 뒤 이틀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 어깨가 몹시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며 새로운 부름에 대한 근심을 쏟아냈다. 새로운 와드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다. 기도를 마치자 평화로운 느낌이 마음을 에워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도를 드린 후에

평소대로 집안일에 몰두했다. 감독님께서 주신 명단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슬쩍슬쩍 훑어보았다. 명단을 몇 번 보고 나니 이름 두 개가 눈에 띄었다. 나는 명단을 들고 그 이름들을 읽어 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 보니 따스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성신을 그토록 강하게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그 이름들을 다시 소리 내어 말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두 자매 모두 생소했지만 그들이 내 보좌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머릿속으로 명단을 되짚어보았다. 명단을 떠올릴 때마다 한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그 자매를 서기로 두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감독님과 만나서 보좌들과 서기 이름을 말씀드렸다. 놀랍게도, 감독님 또한 그 자매들이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 일요일에 교회에 도착하자 감독단 제1보좌는 나와 함께 집회소 밖에 서서 내가 선택한 보좌들과 서기가 도착할 때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었다. 자매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마치 그들을 이미 아는 것처럼 느꼈다. 영은 다시금 이 여성들이



영의 인도를 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신앙개조 제5조 참조) 지도자들은 누구를 부를지 결정하는 일에서 영의 인도를 구한다. 그들은 부름에 수반되는 합당성을 고려한다. 또한 회원 각 개인 또는 가족 상황도 고려한다. 각 부름은 봉사를 받는 사람들과 봉사하는 회원, 그리고 회원의 가족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19.1.1.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내 마음에 심어 주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님께 봉사하리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도 그랬다. 비록 나는 이 자매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각 부름에 적임자들이었다. 어떤 사람에게 부름을 주고 싶은지를 주님께서는 아셨다. 나는 이 위대한 경험을 통해 예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다. ■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생 과업

페이홀라니 카우바카



내가 통가에서 성장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가끔 세미나리 가르치는 일을 도우셨다. 내가 다섯 살 때부터 열 살 때까지 어머니는 세미나리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깨우셔서 수업이 열리는 집으로 데려가셨다. 구아바 나무 사이로 난 400미터도 안 되는 길을 걷는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무섭니?” 하고 물어봐 주셨다. 그러면 나는 용감하게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는 용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봉사할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어.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주셨지. 앞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단다.”

나중에 우리 가족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온타리오로 이주했다. 낯선 나라에 들어선 어머니는 영어도 하지 못하셨고, 문화적 충격도 크게 받으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 모든 자녀를 불러 모으고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부모님은 가족 기도를 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규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금식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가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임하기를 간구하셨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선교사처럼

**위: 1990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대지에
있는 저자의
아버지(모세),
어머니
(라비니아),
조카딸**

행동하도록 가르치셨다. 우리는 교회에 갈 때 항상 흰 와이셔츠를 입었고 선교사처럼 머리를 깎았다. 나는 제사로서 성찬을 축복했고 동생들은 교사와 집사로서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했다. 부모님께서 우리가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네 뒤통을 다하거라. 나는 내 뒤통을 다할 테니. 네가 가르칠 사람들을 찾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마.” 어머니는 네 아들이 모두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꾸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우리는 모두 충실하게 봉사했으며 영예롭게 귀환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페이홀라니, 나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네게 가르쳤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며 흘리신 그 피는 네 영혼을 구원해 줄 거란다. 성전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거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나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나의 간증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전해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 복음 위에 세워졌다. 나는 우리 가족이 언젠가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라는 과업을 훌륭히 해내셨기 때문이다. ■

라틴아메리카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영감에 찬 이야기

이 곳에서 소개하는 후기 성도들은 최근에 열린 교회 역사 박물관 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라틴아메리카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박물관에는 2011년 6월 한 달 동안 스물네 가지 이야기가 전시되었다. 지금도 lds.org/churchhistory/museum/exhibits/mividamihistoria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매체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카르멘 에체베리아 우드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한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카르멘은 아홉 살 때 가족과 함께 후기 성도 자매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카르멘은 즐겁게 초등학교에 참석하며 가족 안에서 느끼는 새로운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 년 후,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카르멘은 “참으로 멋진 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1954년에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친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을 회상했다. 카르멘은 17세 때 중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더 나은 삶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다.





**미리엄 프웨타
아마토**

브라질에서
태어나 성장한
미리엄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교사
추천서를 썼는데,

7주 후에 미리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로 오라는 부름장 내용을 발표했다. “부름장을 읽었을 때 가족들이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공을 넣었을 때처럼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물론 기뻐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넬슨 무스케스

넬슨의 부모가
선교사들을
만난 것은
넬슨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넬슨 형제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어느 날, 집 앞 현관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히그비 장로와 존슨 장로를 보았는데 그때는 그들이 선교사들인 줄 모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누나에게 의자 두 개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저 젊은이들이 우리 인생을 바꿔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사진 촬영: 마크 제이 데이비스, 크레이그 다이먼드, 켄트 아일즈, 크레이그 제이 로



로빈 멘도자

에콰도르에서 가난하게 자란 로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하루에 12시간을 농장에서 일하는 로빈은 기도로 인도를 간구하던 중에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었다. 로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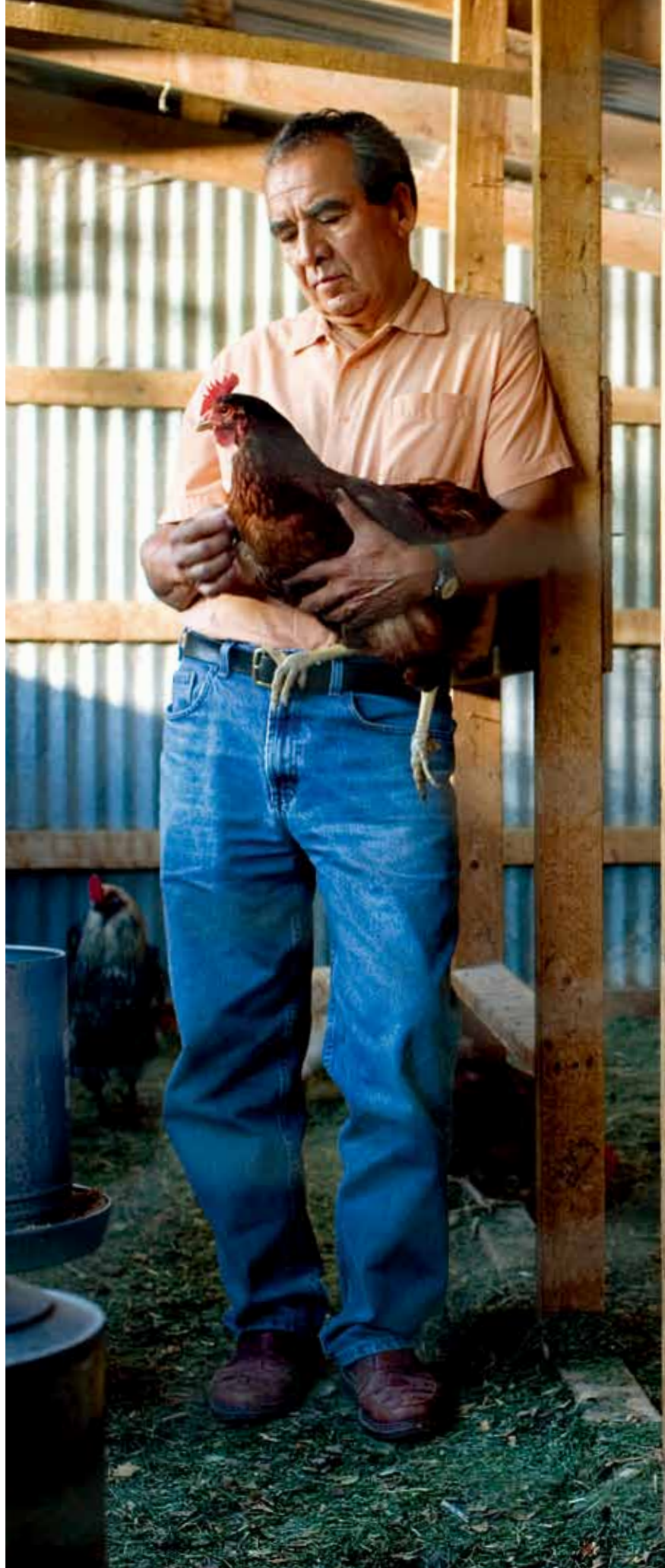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 즉 자신의 삶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했다. 로빈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저는 그 느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빈은 그때 신앙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6세 때, 로빈은 일자리를 위해 과야킬로 옮겨 갔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계속된 영감에 따라 로빈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포부를 실현했다.



어슐러 빈더 브록

다섯 살 꼬마아이였을 때에도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했다고 기억하는 브록 자매는 베네수엘라에서 십대 시절에 가족과 함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신앙이 깊었던 브록 자매는 16세에 지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평생에 걸친 봉사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신앙은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저는 제 삶에 구주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속죄야말로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훌륭하고 비이기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분께서는 제게 변함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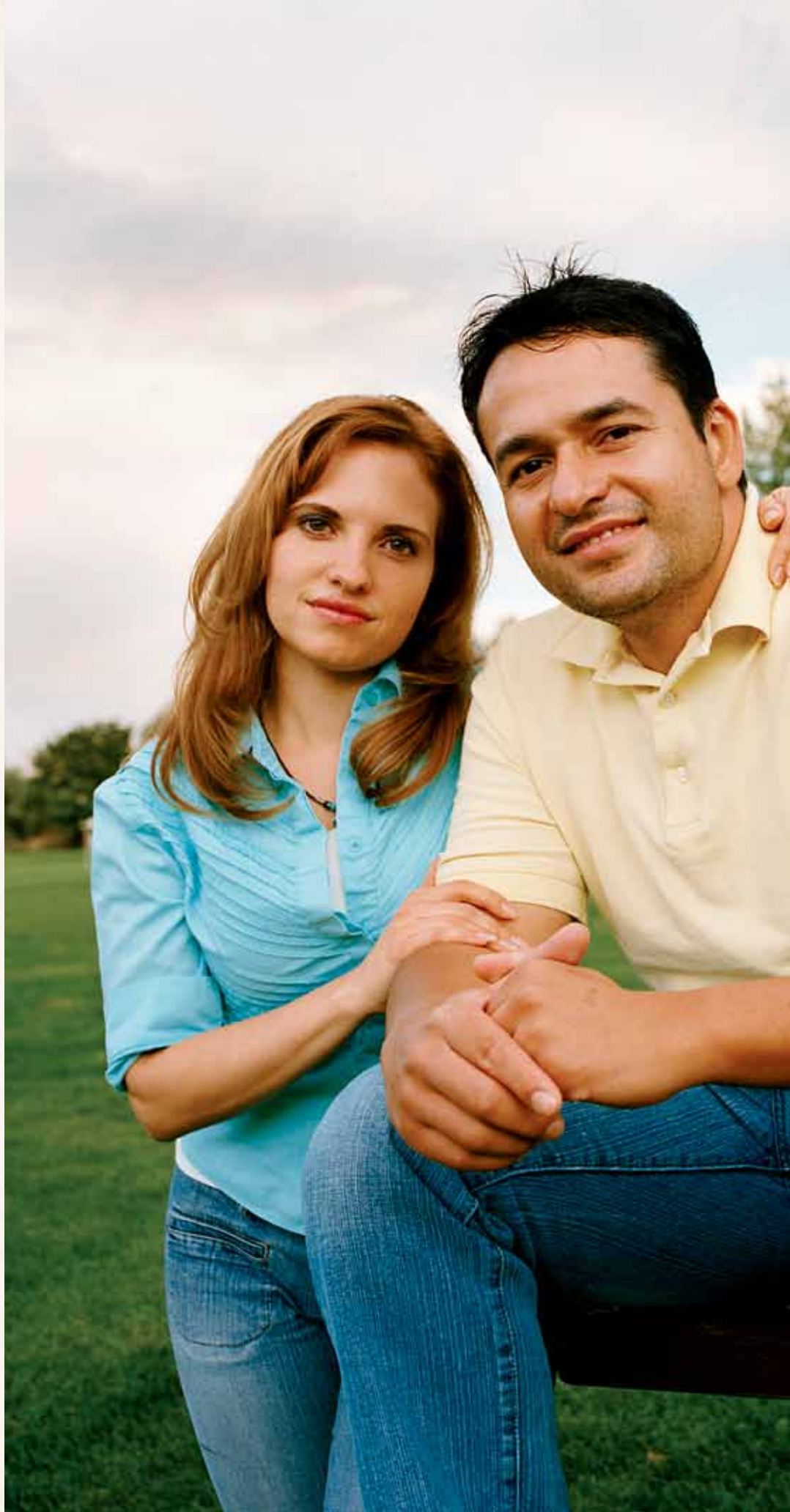


링컨 피터즈

칠레 산티아고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링컨은 열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모와 삼촌과 함께 살았다. 링컨이 18세였을 때 바튼 장로와 벤들리 장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링컨의 고모와 할머니는 즉각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링컨은 선교사들을 피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에 인자하시던 할머니께서 링컨의 방에 오셔서 이불을 걷어 내시며 교회에 함께 가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느닷없는 할머니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지만 할머니를 존경하는 링컨은 일어나서 교회로 갔다. 그날 링컨은 결국 인생을 바꿔 놓을 새롭고 강력한 무언가를 영혼으로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링컨은 칠레에서 초기에 개종한 성도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루이스 에르난데스와 카를라 에르난데스

루이스와 카를라는 십대 때 온두라스에서 만나 데이트를 시작하고 곧 결혼했다. 루이스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는데, 카를라의 부모님께 존경심을 느꼈다. 카를라의 부모님들은 “서로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싶게 해 준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루이스는 곧 침례를 받았고 카를라와 루이스는 과테말라에 있는 과테말라시티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이르러 부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카를라는 급기야 십대에 한 결혼이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품고 집을 떠나버렸다. 루이스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카를라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카를라를 집으로 보내 주셨다.” 현재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노에미 구스만 데
아브레아**

노에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교회에 들어온 노에미네 가족은 노에미가

십대일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노에미는 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좋긴 하지만, 아르헨티나 문화를 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중남미 사람들은 매우 따뜻해서 금세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어 주며 여러분을 다정히 대할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을 매우 좋아해요. 참 멋진 일이죠. 저에게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일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답니다.”



오마르 카날스

오마르의 어머니는 1948년 우루과이에서 두 후기 성도 자매 선교사들에게 우산을 준 인연으로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오마르의 누나가 침례를 받았다. 1948년에 태어난 오마르는 1947년에 문을 연 우루과이 선교부에서 유아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아기가 되었다. 오마르는 여덟 살 때 부모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오마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방송인으로 일하던 오마르는 1973년에 교회 직원으로 채용되어 연차 대회 스페인어 통역사가 되었다. ■

부름에 응하는 신앙

“시온에 있는 불모지”를 일구기
위해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일에 바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십 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팔리 피 프랫 장로님은 성도들이 솔트레이크밸리로 들어간 지 2년째 되던 해인 1849년에 원정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지형은 험준했습니다. 원정대가 그레이트 베이스 가장자리에서 버진 강과 산타클라라 강이 합류하는 지점(현재 유타 주 세인트조지 남쪽)으로 약 900미터를 내려가자 화산 폭발로 생긴 울퉁불퉁하고 메마른 모래땅이 나왔습니다. 원정대는 실망했습니다. 한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울퉁불퉁한 돌과 모래투성이인 지대를 지나며 끔찍한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혔다. ……

광활한 대지는 혼돈 그 자체였다. 온통 거대한 구름과 황무지, 풀 한 포기 없는 음산한 평원, 깎아지른 암벽, 바삭 말라 푸석푸석한 흙 …… 상상도 못할 만큼 어지럽게 놓인 사암뿐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곳은 옛적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지각 변동으로 안팎과 위아래가 뒤집힌 황폐한 지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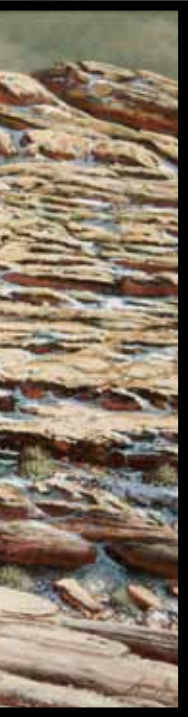
그러나 남쪽으로 뻗은 땅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바람에 맞아 침식된 절벽과 황량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동쪽 샌후안 지역이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거칠고 외진 땅을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았으나, 그럼에도 그곳에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1879년 파로완 스테이크 분기 대회에서 250명은 존 테일러 회장님으로부터 샌후안 미션을 설립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차 80대와 1,000마리에 가까운 마소를 이끌고 눈 덮인 산과 뾰족하게 높이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압도하는, 발길이 닿지 않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탐험대는 샌후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



마차와 마차, 린 그리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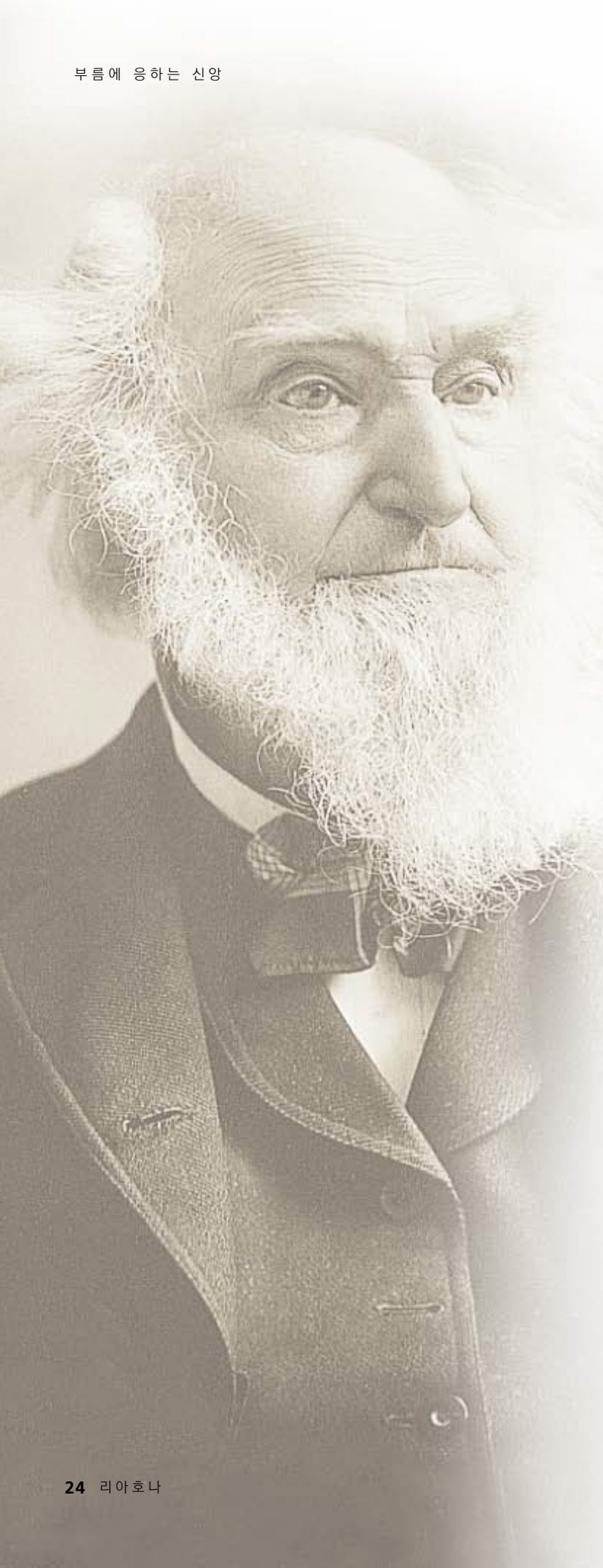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지만 이내 가장 크고 위협적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오가지 못하는 콜로라도 강 협곡이었습니다. 지친 정찰대는 기적적으로 협곡 사이에서 좁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 갈라진 틈은 610미터나 되는 붉은 절벽 아래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바위 틈”이 동쪽 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듯했습니다.

사람에 나 있는 그 틈새는 말이 지나가기에는 대부분 너무 좁았고 어떤 부분은 성인 한 명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20여미터나 되는 험준하고 가파른 비탈은 짐을 실은 마차는 고사하고 산양 한 마리도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감한 성도들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879년 12월과 1880년 1월 대부분 동안 발파용 화약과 도구를 사용하여 협곡 절벽 면을 부수어 지나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길이 생기자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선두 마차 40대를 그 틈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피프티마일 스프링에서 대기하는 다른 마차들은 나중에 따라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밧줄을 “마차 뒤에 걸어 열두 명 이상의 남자가 그 밧줄을 붙잡고서” 마차가 서서히 내려가도록 조를 짰습니다. 그런 후 마차가 마구 굴러가 버리는 참변을 막기 위해 바퀴를 사슬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퀴가 미끄러지며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마차를 아찔한 절벽 아래 비탈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는 개척자 역사에서 위대한



우리는 이 충실한 개척자들 이야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와 미주리를
떠났을 때, 그런 후 곧 불에 타버릴 성전을 멀리서 보며
얼음으로 뒤덮인 강을 건너 소중한 나무를 떠났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을 봅시다.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협곡 바닥에 이르자 그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직접 만든 평평한 작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갔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셉 스탠퍼드
스미스 가족이 탄 마차가 그날 내려온 마지막 마차였습니다.

스탠퍼드 스미스는 질서 있게 앞 마차들이 내려가도록
도왔지만 어떤 일인지 일행들은 행렬 마지막에 있던 스미스
형제 가족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일행에게서 떨어져 버림받은 듯한 큰 불안감에
휩싸인 스탠퍼드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가족을 절벽
가장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앞쪽에
배치시키고 다른 말 한 마리는 마차 뒤에 있는 굴대에 걸어
땀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잠시 서서 그 위험천만한 틈새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스탠퍼드는 아내 애러벨러에게 몸을 돌리며
“우린 못할 것 같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지만 우린 해내야 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탠퍼드는 “뒤에서 마차를 잡아 줄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붙잡을게요.”

아내인 애러벨러는 누비이불을 땅에 펼쳐 젖먹이 아들을
내려놓고 세 살 난 로이와 다섯 살 난 에이더에게 맡기며
“아빠가 올 때까지 어린 동생을 잘 붙잡고 있어.” 하고
일렀습니다. 그런 후 애러벨러는 마차 뒤에 서서 뒤에 매둔
말의 고삐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스탠퍼드는 마차를 끄는 두
말을 그 틈새를 지나 아래로 출발시켰습니다. 마차는 아래쪽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자마자 뒤에 매인 말이
넘어졌습니다. 애러벨러는 말과 마차를 뒤쫓아가며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곧이어 애러벨러도 넘어져서 말과
함께 질질 끌려갔고, 그 바람에 끄찍하게도 발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뽀족뽀족 튀어나온 암벽에 깊이 긁혀 상처를
났습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여성은 옷이 찢기고 쓰러린 상처를

입은 채로도 강가에 이를 때까지 긴 비탈을 내려오면서 줄곧 힘과 신앙을 다해 줄을 놓지 않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탈 아래에 다다르자마자 스탠퍼드는 자신들이 해낸 일을

무사히 해냈어요. 이렇게 해내는 데는 애러벨러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²

부름이 오면

그 바위 틈새를 지난 탐험대는 선지자에게서 부름이 왔을 때 그에 응한 초기 성도들의 극적인 결단력과 헌신에 관한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현재 네바다 주에 속해 있는 머디 미션을 설립하라는 부름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초기 개척지처럼 머디 지역에서도 매우 고된 삶이 예견되었으므로, 그곳에 정착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에는 많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했습니다.

1860년대에 그 부름을 받은 이들 중에는 “지구상에 있는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이면 머디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남북전쟁으로 물자 수송선이 콜로라도 강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전쟁으로 전통적인 직물 공급원이 가로막히자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세인트조지 시와 워싱턴 시에 코튼 미션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재배되는 목화는 머디 지역에서도 재배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셋째, 후기 성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고립된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고된 노동만 기다릴 뿐 얻을



엘리자베스 클레릿지(위)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늘날 미국 네바다 주 머디 미션이라고 하는 힘든 지역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라는 부름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버지가 부름을 받으시고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지.” 하고 말했다.

믿을 수 없어 하며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곧바로 절벽 꼭대기까지 600여미터나 되는 거리를 급히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절벽 가장자리로 기어 올라간 스탠퍼드는 꿈쩍 하지 않고 처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다른 두 아이들은 자신에게 꼭 달라붙게 해서 갈라진 바위 틈 아래 쪽으로,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사슬과 밧줄을 들고 자신들을 향해 오는 남자 다섯 명을 보았습니다. 스미스 가족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은 이들이 도움을 주러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는 “우린 괜찮아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외딴 지역인데다 대부분이 황폐하며, 그 이름처럼 머디 강은 흙탕물이었습니다.[머디(Muddy)는 '진흙투성이'라는 뜻임-웁킨이]

어떤 신앙과 결심으로 어떻게 머디 지역에 정착했느냐에 관해 정착민 중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특히 이 사례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담력과 용기, 신념을 대표합니다. 엘리자베스 클래릿지 맥쿤은 아버지가 머디 지역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타 주 주앵 카운티에 있는] 사랑스러운 옛 니파이[웁은 열다섯 살이었던 내게 지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곳처럼 보였다. 우리는 브리검 영 회장님과 그분 일행이 오시는 정기 방문을 무척이나 고대했다. ……

브리검 영 회장님, 브로스 형제님, 킴블 형제님, 웰스 형제님과 그 일행이 마차에서 내려 꽃으로 뒤덮인 길을 걸어서 ……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집으로 오셨다. ……

우리는 모두 [일요일] 오후 모임에 참석했다. 여자 아이들은 흰옷을 입고 앞줄 지정석에 앉아 있었다. 말씀은 하나같이 훌륭했고, 우린 행복했다. 그때 갑자기 브리검 영 회장님이 ‘머디’ 지역으로 가서 정착할 선교사로 선출되어 부름을 받을 사람들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우리 중 다수가 이미 덕시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머디 지역은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더 멀리 떨어진데다가 훨씬 더 열악한 곳이었다. 아, 그런데 내 귀에는

‘새뮤얼 클래릿지’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새로 산 [내] 흰 원피스가 눈물로 얼룩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내 옆에 앉은 여자



아이의 아버지도 그 부름을 받았다. 그 친구는 “왜 우는 거니? 난 울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안 가실 거니까.” 하고 말했다. 나는 “바로 그 점이 달라. 우리 아버지는 가실 거야. 아무것도 아버지를 막지 못해. 부름을 받으시고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지.” 하고 말하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

우리는 막 새 집으로 이사를 와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지들은 아버지에게 집과 농장을 그대로 두고 잠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은 부름이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님을 잘 아셨다. 아버지는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돈으로 시온의 또 다른 불모지를 일구는 데 보태 쓰겠어요.’ 하고 말씀하셨다.”³

신앙은 이 사업이 전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우리 확신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기들을 평원에서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만든 무덤에 묻어 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본 뒤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하는 사업

이 열다섯 살 난 소녀와 이 소녀가 태어난 가족에게서 볼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은 어디서 생겨났고,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소녀는 무슨 힘으로 조금 덜 용감한 친구를 향해 “우리 아버지는 가실 거야. 아무것도 아버지를 막지 못해.” 하고 말한 것일까요? 또한 “부름을 받으시고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부모님이 마차와 함께 콜로라도 강 협곡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머니가 이르신 말을 그대로 믿은 세 어린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용감하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충실한 개척자들 이야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경륜의 시대에서 보아 왔고, 또 확실히 이 경륜의 시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와 미주리를 떠났을 때, 곧 불에 타 버릴 성전을 멀리서 보며 얼음으로 뒤덮인 강을 건너 소중한 나무를 떠났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을 봅시다. 그것은 성도들이 윈터 퀴터스에서 죽은 이들을 무수히 땅속에 묻었을 때, 그 후 와이오밍 침니록 근처에서 또는 스위터워터 강을 건너면서, 또는 마틴스 코브에 있는 눈더미 속에 외롭게 무덤을 만들고, 때로는 빵 상자만큼이나 작은 무덤을 두고 떠났을 때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신앙, 이 사업의 진실성과 이 복음이 참됨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 소년이 기도하기 위해 나무숲으로 들어간 것도 신앙이었으며, 그곳에서 일어서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결국 그로부터 겨우 24년이란 짧은 세월 후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당연히 복음과 우리 사업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언제나 우선시 될 것이며 변하지 않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사업이 전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우리 확신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기들을 평원에서

우리가 보았고,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신앙, 이 사업의 진실성과 이 복음이 참됨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임시로 만든 무덤에 묻어 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본 뒤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애러벨러와 같은 여성이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절벽 가장자리에 놓아 두고 마차를 잡아 끌며 그 위험한 비탈을 내려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새뮤얼 클래릿지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시온을 건설할 머디 미션이라는 불모지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핵심 추진력은 신앙입니다. 바위처럼 강하고, 용광로 속 금속처럼 단련되고, 원숙하며, 영적으로 강화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힘이며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추진력입니다.

확신에 대한 부름

시온에는 여전히 일구어야 할 '불모지'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디나 샌후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속과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일에 바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올라야 한다는 부름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임무나 어려움 또는 이런저런 필요 사항이 생길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신앙의 저수지를 마련하도록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키우도록 간청합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며, 소음과 소란을 차단하고, 자연을 즐기십시오. 개인적인 계시를 불러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우리 개척자 조상의 동력이었던 간증을 얻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맞서거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내면으로 좀 더 깊숙이, 더 멀리 뻗어나가야 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불러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족을 축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활동과 봉사, 헌신과 충실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지표는 늘 강한 가족 유대입니다. 이 교회에 깃들어 있는 위엄 중 일부는 개개인의 회원에게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때로는 새로운 개종자가 그런 회원이며, 때로는 가족 중 유일한 후기 성도가 그러한 회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있는 회원들은 신앙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불어넣을 때 더 잘 자라고 더 잘 수호되며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야 할 경우, 그렇게 한 후에는 가족들이 홀로 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가족을 굳건히 하여 그 안에서 신앙이 강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부름이 온다면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인 회원과 비회원, 산자와 죽은 자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동안 우리 자신의 어린 양떼를 포함하여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을 때에만 현명하게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과 가르침을 주었다면 어린

엘리자베스 클래릿지가 이해했듯이 그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즉, 부름이 오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이 그 부름에 응할 것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앙이 깊고, 가족 관계가 돈독하며, 가까이에서든 멀리서든 모든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믿고, 가르치고, 성전에 가는 후기 성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탠퍼드 스미스와 애러벨러 스미스와 같다면, 새뮤얼 클래릿지와 그의 용감한 딸 엘리자베스와 같다면 이 의로운 군대는 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뜻을 그분들 뜻에 일치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진정 바위처럼 확고하고 개척자처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곳곳하게 전진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

2010년 9월 12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지역 스테이크 대회 방송 말씀에서 발췌.

주

1. Milton R. Hunter, *Brigham Young the Colonizer* (1973), 47.
2. David E. Miller, *Hole-in-the-Rock: An Epic in the Colonization of the Great American West*(1959), 101~118 참조.
3. Elizabeth Claridge McCune, in Susa Young Gates, "Biographical Sketches," *Young Woman's Journal*, July 1898, 292, 293.

바바라 톰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과 봉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해 줍니다.

한 친구와 방을 함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로 성가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짜증 날 일이 뭐 있겠어? 내가 얼마나 둥글둥글한 사람인데. 안 그래?’ 그 친구가 저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 삼아 저도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학 때 한 감독님이 성찬식에서 주신 조언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감독님이 주신 조언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저는 그 친구를 위해 봉사하여 감독님의 권고가 사실인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돕고, 친절을 베풀고, 그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친구는 훌륭하고 재능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한 아파트를 쓴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친구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그토록 달라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서로 도우라.
2. 서로 사랑하라.

구주와 사도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을 때 차분한 분위기가 방안을 감쌌을 듯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곧 제물로 바쳐져 십자가에 못박히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머지않아 구주의 사명을 깨닫고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과 봉사는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야 할 값진 성품이라는 점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귀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붓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곧 있을 제자의 배신을 비롯하여 머지않아 있을 일들에 대한 슬픔을 감당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약속된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주님께 발을 맡길 수 없다며

도리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구주께서 애정을 담아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도록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3~15)

예수님은 열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과 봉사는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야 할 값진 성품이라는
점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귀한 사람은 없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한 방법은 기꺼이 봉사하고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주신
다음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11; 또한 누가복음
22:26 참조)

구주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자니 지난 몇 달과 몇
년 사이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베풀어 주신 봉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폭풍과 지진, 기근, 전염병이
발생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고통을 겪으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핀 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페루에서 수천 명의 보금자리를
파괴한 지진이 있을 후, 한 감독님은
허물어진 자기 집 잔해를 뒤로한 채
와드 회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신이
이끄는 작은 양 떼와 같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티에 사는 한 어머니는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었으며, 생존자들을 북돋아 주고
식량과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칠레에 사는 청년 성인들은 그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나눠 주는
일에 서둘러 동참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과 그 외 많은 분들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요한복음 13:15)라는 구주의
간청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조금 더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35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십이사도, 지역 회장단, 감독,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이들을 향해 얼마나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지 느끼셨습니까?
구주의 모범을 따를 때 그러한 사랑이
쏟아납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봉사는 하나이고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사랑과
봉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해 줍니다. ■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합시다. 특히
역경에 처할 때 형제와 자매들 곁에
있어 줍시다. ……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마음을
내밀면 우리에게도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더욱 깨끗해지고 강해집니다. 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9,
75쪽.





넬슨 코일라(왼쪽)가 떠다니는 섬 우타마에 새로운 또또라 갈대를 깔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이 섬에서는 코일라 가족(위쪽)이 거주한다.

신앙의 섬: 근면에 관한 이야기

코일라 가족이 사는 섬은 정기적으로
갈대를 더해 주어야만 가라앉지 않는다.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넬슨 코일라와 도라 코일라는 섬에 산다. 하지만 이 섬은 바다나 호수 위로 솟은 단단한 바위로 된 보통 섬과는 다르게 페루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다니는 자그마한 섬이다. 이 섬은 코일라 가족이 직접 갈대로 만든 곳이다.

섬을 만들고 그 위에 가정을 꾸리려면 신앙이 필요하다. 섬씨 10도인 물 위에

떠 있는 이 섬에서 그들 가족과 열두어 채 남짓한 오두막을 지탱해 주는 것은 1.2미터 두께밖에 되지 않는 여러 층으로 된 갈대뿐이다. 게다가 주변 환경은 그들의 안식처인 섬을 문자 그대로 계속 분해해 버릴 듯한 기세로 위협한다.

그러나 그 섬은 넬슨과 도라가 가족을 위해 영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곳이다.

우로스 족이 사는 떠다니는 섬

우로스 족 후손 수백 명은 지금도 떠다니는 섬 50여 곳에서 거주하며, 우타마도 그 섬들 중 하나이다. 우로스 족은 잉카 문명 이전부터 내려오는 부족으로 수백 년 동안 이런 섬에 거주해 왔다.

대개는 친척 관계인 여러 가족이 한 섬에 살면서 공동으로 섬을 유지한다.

우타마에서는 코일라 가족 외에도 한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다.

가장 큰 섬에서는 많으면 열 가족까지 생활하기도 한다.

섬은 긴 밧줄로 호수 바닥에 헐렁하게 고정되어 한 자리에 떠 있지만 2010년에는 이례적인 강풍이 불어 40여 개 섬이 피해를 입고 몇 킬로미터를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고정 장치가 강화되었다.

사진 촬영: 애덤 시 올슨



그곳은 바로 세상에 맞서 단결시켜 줄 신앙의 섬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앙을 기르고 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근면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꾸준해야 하는 이유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섬을 만들고 그 위에서 생활해 온 우로스 족에게 또또라 갈대는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수심이 얇은 곳에서 자라는 이 갈대는 밥 짓는 연료로 사용되고 그 뿌리는 음식으로 사용된다. 껍질은 약으로도 쓸 수 있다. 이 갈대로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이 사는 집, 전통 배, 망대, 섬, 심지어 쓰레기통까지도 이 갈대로

만든다.

우로스 족은 갈대를 겹겹이 깎아서 섬을 만든다. 하지만 일반 건축 자재와는 달리 또또라 갈대는 수명이 길지 않다. 건기에는 태양 빛에 갈대가 마르지만 우기에는 습기 때문에 갈대가 쉽게 썩는다. 물과 맞닿는 아랫부분은 점차 분해된다. 코일라 가족이 사는 섬이 계속 부식되기 때문에 벨손 형제는 10~15일마다 갈대를 새로 깎아 주어야 한다.

벨손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섬을 만드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갈대를 깎아 주지 않으면 섬은 서서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갈대를 겹겹이 많이 깎아 줄수록 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견고해집니다.”

미루면 위험합니다

갈대를 더 까는 일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분주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뤄 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미루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약한 부분을 디터 찬물 속으로 빠질 위험이 커진다. 어른에게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일라 가족의 두 살배기 아들 에메르손과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벨손 형제는 내일의 가족 안전이 이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새로운 갈대를 깎아 준다.

코일라 가족의 삶을 바꿔 놓은 것은 바로 근면에 대한 교훈이다.

근면이 낳은 결과

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다.¹ 도라는 1998년에 침례 받고 나서 근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배웠다.

티티카카 호에 사는 코일라 가족(벨손과 도라, 에메르손)과 우로스 족에게 또또라 갈대는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복음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갈대를 정기적으로 더해 주어야 한다.





신앙을 계속 강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는 그 신앙을 계속 강화하고 꾸준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기를 배우는 것은 영적인 준비의 열쇠입니다. 뒤로 미루고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에 치명적인 적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8쪽.



충실한 가족들

“티티카카 호수에서 떠다니는 섬에 사는 이 충실한 후기 성도 가족들이 저에게 조그마한 아푸 인티

섬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집을 축복하시도록 주님께 간구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특별한 경험들”,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2쪽.

래스밴드 장로가 우로스 족 섬들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conference.lds.org로 가서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찾아본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진을 더 보려면, 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도라는 여동생 알리시아와 함께 칩레를 받고서 우로스에 있는 여러 섬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에 도라의 아버지가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두 자매에게 일어났다. 둘 다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불친절해졌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두 딸이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바뀌셨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에 늦지 않도록 일찍 깨워 주기 시작하셨지요.”

도라는 자신과 알리시아가 작은 일, 예를 들어 십일조를 내고, 기도과 경전 공부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주 성찬을 취하여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 등을 규칙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생활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신앙과 근면에서 비롯된 변화²를 직접 지켜본 도라의 아버지도 나중에는 나머지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들어왔다.

근면에 따르는 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하는 것은 주님의 성약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특성이자,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부지런히 기도하고,³ 계명을 지키고,⁴ 계시에 귀 기울이고,⁵ 경전을 탐구하고,⁶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하는⁷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약속하셨다.

코일라 가족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신앙의 섬을 유지하는 경험을 통해 근면에는 실제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넬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일과 요리 등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일이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넬슨 형제는 아침에 새로 깔아놓은



갈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한결같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금식하고, 가정의 밤을 한다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

주

1.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diligence” 참조; 또한 “persevere” 참조.
2. 앨마서 32:41~43 참조.
3. 니파이전서 2:18~19; 10:17~19; 이노스서 1:12 참조.
4. 니파이전서 15:8~11; 16:28~29; 이노스서 1:10; 모사이야서 1:11; 4:6 참조.
5. 모사이야서 1:16; 앨마서 12:9~11 참조.
6. 모사이야서 1:6~7; 앨마서 17:2 참조.
7. 야곱서 1:19; 5:75; 모로나이서 9:6 참조.



어린이

물이 두렵지 않아요

페루 티티카카 호수 아푸 인티 섬에 사는 요세프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일 곱 살 된 요세프는 물가에서 자란 아이이다. 아니, 차가운 티티카카 호수 물에 둘러싸여 사방의 물과 함께 살아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갈대로 만든 떠다니는 작은 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요세프 가족은 우로스 족이다. 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다니는 섬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해 왔다. 그들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목욕을 한다. 호수에서 노를 저어 이 섬 저 섬으로 이동한다.

요세프가 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침례 받으러 침례탕에 들어가는 일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요세프도 다른 많은 아이들과 똑같이 느낀다.

“설레긴 하지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걱정이 돼요.” 요세프는 말한다.

주변이 온통 물로 둘러싸인 우로스 족 어린이들은 물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 그래서 요세프가 부모님께 걱정거리를 말씀드리자 가족들은 가정의 밤 동안 침례에 대해 이야기했고 요세프와 아버지는 침례를 주고받는 연습을 했다.

“아버지께서 침례를 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 겁먹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요세프는 침례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간에 더 열심히 듣고 신앙개조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세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갈 거예요. 니파이가 말한 것처럼 가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할 거예요.”(니파이전서 3:7 참조) ■



요세프가 좋아하는 것

- 니파이가 낫쇠판을 구하는 이야기. (니파이전서 3~4장 참조)
- 신앙개조 제10조.
- 여동생과 조카딸(위쪽) 그리고 조카와 노는 일.
- 기름에 튀긴 송어와 감자 먹기.
- 자신이 기르는 어린 양 돌보기.



논문과 몰몬경을 사수하여

대 학생 시절에 내가 등록한 우등 프로그램(honors program: 우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유킨이)은 학생들에게 논문을 쓰도록 요구했다. 논문은 교수님 두 분에게서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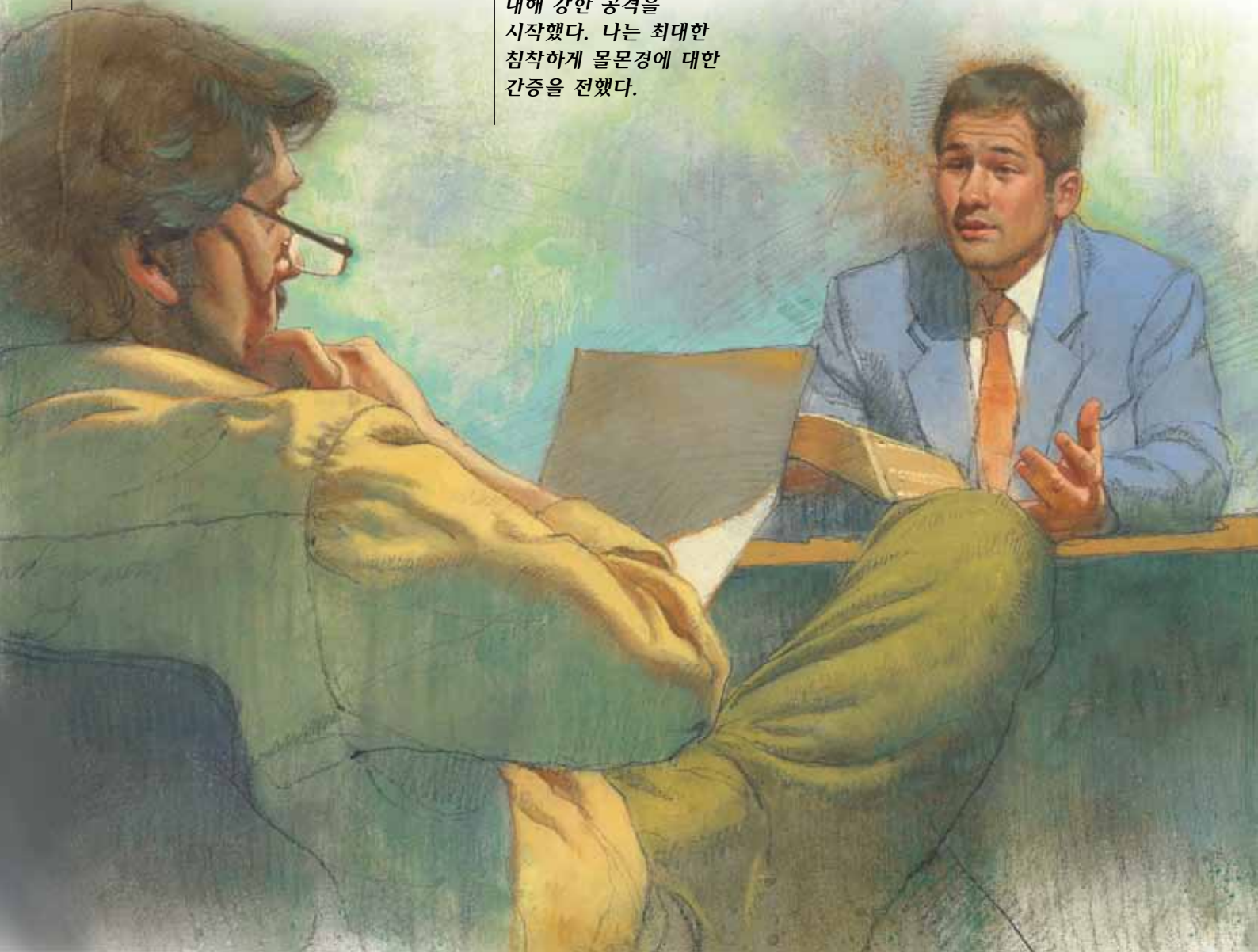
나는 논문 내용을 몰몬경에 나오는

전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교수님 한 분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자 그분은 나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교수님은 지도 교수가 될 만한 다른 한 분도 추천해 주셨다.

그 즉시 교수님은 내 논문이 아닌 몰몬경에 대해 강한 공격을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나는 추천받은 교수님을 만나 내가 쓸 논문 주제를 설명해 드렸다. 내가 몰몬경을 언급하자마자 그 교수님은 태도를 바꾸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교수님이 말씀을 끝낼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분에게 우리 믿음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교수님은 납득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내 논문을 지도해 주겠다고 하셨다.

거의 일 년간 연구하고 작성한 후, 교수단 승인을 받기 위해 논문을



제출했다. 그 해에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으므로 졸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과제를 끝마쳐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교회를 비난했던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자는 내용이였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교수님은 문을 닫고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내 논문이 아닌, 물몬경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나는 주지하며 교수님에게 내 논문을 승인해 주실 것인지 물었고, 그분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울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분의 승인이 없으면 우등 프로그램 졸업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다.

나는 논문을 지도해 준 다른 교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 교수님이 내 논문을 승인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라며 조언하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분이 나를 다시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몰라 긴장하면서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오신 교수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는 나더러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교수님은 한 마디 말도 없이 펜을 꺼내어 내 논문에 서명하심으로써 공식적인 승인을 하셨다. 그분은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내가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는 살짝 웃어 보이셨다.

그 교수님에게 내 간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나는 우리가

믿는 것을 옹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화하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

스콧 맥도널드, 미국 캘리포니아

오빠를 다시 만날 때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후안 페르난도 오빠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오빠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엄마께 여쭙 보자 엄마는 오빠가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뇌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오빠는 평생을 침대에서 보냈다.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오빠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오빠는 위대한 영이라는 점을 알았다. 오빠가 걷고 뛰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상상도 안 갔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오빠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오빠만 남기고 다른 가족이 먼저 죽으면 누가 오빠를 보살펴 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후안 페르난도 오빠보다 우리를 먼저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오빠는 열여섯 살 되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 오빠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빈자리는 엄청났다. 우리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며칠 뒤에 나는 오빠에 대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구름이 물러와 시야가 희미해졌다. 멀리 무언가가 보이기에 나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계속 걸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마차가 보였다. 꽃들을 바라보는데 잘생긴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마차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추어서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가 바로 우리 오빠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를 보니 정말 행복했다. 오빠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오빠를 껴안고 입 맞추고 싶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오빠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무척 감사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순간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다정한 말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주 덕분에 우리는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 가족과 재결합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앰울레크가 한 말을 기억한다.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다”(엘마서 11:43)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감사하다. 나는 언젠가 오빠를 다시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

마리아 이사벨 파라 데 우리베, 멕시코

켈거리에서 보낸 나의 개척자 시절

나는 1947년 영국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다섯 살 때 친구 소개로 선교사들과 처음 만나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 가족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회의 초기 개척자들에 대해 배우면서 나는 대평원을 횡단한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나는 그 점에 대해 다르게 느끼게 되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돕기 위해 초기 개척자들이 길을 닦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게 복음을 소개해 준 두 선교사는 초기 개척자들 후손이었기에 결국 나는 개척자들에게 많은 빚을 진 셈이다.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또한 내가 너그럽고 근면한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 본 적이 없는 것과 오늘날 내가 누리는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싸우기까지 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훌륭한 가치관과 원리 속에서 나를 키워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여러 종류의 개척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교회에서 일 세대 회원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정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가

다니던 작은 지부는 회원, 특히 신권 소유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에는 선교부에서 지부를 폐쇄할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내가 이제껏 내린 결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에 속한다. 나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무척 사랑했고, 부모님도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다. 하지만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곳에 머물렀다가는 내 간증이 위태로워질 것만 같았다. 내가 떠나던 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께서는 손을 흔들며 기차를 따라 달려오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67년 5월 어머니날에 나는 앨버타 주 켈거리에 도착했다. 같이 머물던 회원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한 나는 모임 내내 울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캐나다가 좋긴 하지만 영국과 가족이 몹시 그립다고 편지를 쓰던 때가 기억난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면서 향수병과 외로움과 실망도 경험했지만, 나는 복음에 충실했다.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개척자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다. 우리는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으며 교회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내가 떠나던 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께서는 손을 흔들며 기차를 따라 달려오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개종 시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영을 따르겠다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를 비롯하여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안팎에서 길을 닦아 준 초기 개척자들에게 나는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다. 나보다 앞서 살았던 분들은 현대 개척자가 될 기회와 용기를 내게 주었다. ■

로레인 길모어, 캐나다 온타리오

두 도시와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

일 리노이 주 나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미시시피 주 내치즈 시도 미시시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다. 교회 초기 시절에 영국에서 온 후기 성도들은 뉴올리언스에서 나부 강 상류로 가는 길에 종종 내치즈를 거쳤다. 1844년에는 수많은 후기 성도들이 탄 배가 내치즈에 정박해 있을 때 한 폭도들의 무리가 배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

미국 국립 공원 관리국에 일자리를 얻어 내치즈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이 앞섰다.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유타 주에 두고 온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이 낯선 도시에서 길 잃은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다.

첫날, 공원 관리 감독관은 공원 내에 있는 남북 전쟁 시대 저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곧 말을 안내 관광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겨우 1층 답사가 끝났을 때 이미 나는 세세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워졌다. 프랑스 풍 로코코 양식으로 만든 가구부터 영국식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남부 지역의 번영기를 보여 주는 화려한 저택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둘러봐야 할 2층이 남았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좌절감을 억누를 길이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다.

우리가 큰 계단을 올라갔을 때, 한 도시 풍경을 그린 유화 한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예전에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었는데, 뭔가 낯익어 보였다. 그림 속에서 마을 절벽 위에 세워진 큰 건물로 시선이 끌렸고, 도시 주변을 크게 감싸 안고 흐르는 강을 보았다.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그 도시를 그린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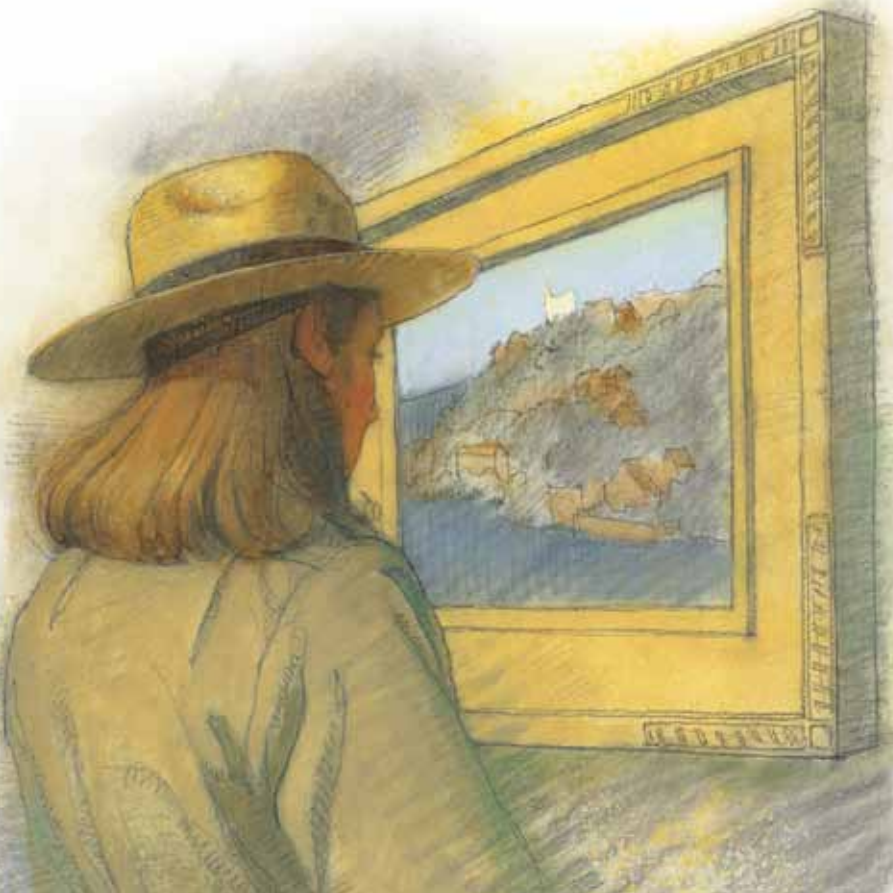
나는 그 그림이 나부를 그린 것이냐고 물었다. 감독관은 내 질문에 놀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을 가장 최근에 소유했던 사람 중 하나가 그림을

구입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19세기 중엽에 그려진 듯했으며 강과 내치즈를 그린 풍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박해 속에서 내치즈를 통과한 성도들은 마침내 나부에 도착했을 때 분명 큰 위안과 감사를 느꼈을 것이다. 것처럼 나도 내치즈 저택에서 나부 그림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그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상황을 아시며 향수병과 두려움, 의심을 극복할 힘을 내게 축복으로 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나부 그림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친절하신 자비를 느꼈다. ■

티파니 테일러 보울즈, 미국 일리노이 주

우리가 큰 계단을 올라갔을 때, 한 도시 풍경을 그린 유화 한 점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그 도시를 그린 것일까?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본지 킷치 장로
지역 칠십인,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저는 공중진화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용감한 남녀 대원들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하며 올라가는 동안 산불이 발생한 곳 위쪽에 낙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을 꺼 내려 간다고 합니다.

유달리 규모가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뛰어난 대원들로 구성된 공중진화대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에 지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소방관인 총감독은 그러나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지침을 말해 줄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 지점 위쪽 산등성이에 낙하하면 무전기로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를 통해 진화를 시작할지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원들은 재빨리 비행기에 올라탔고 거세지는 불 위쪽 산등성이로 낙하한 다음, 작전을 시작하고자 모였습니다. 불 위쪽에서 바라보니 진화 작업을 시작할 만한 경로가 여섯 개 정도 보였습니다.

공중진화대 대장은 총감독과 한 약속에 따라 휴대용 무전기를 꺼내 알맞은 주파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경로를 택해야 할지 묻기 위해 총감독을 호출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쉬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한 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 총감독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총감독이 다른 일로 바쁠 것이라 생각하고는 10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을 해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잡음만 들릴 뿐, 어떤 지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함께 상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길을 잡을 만한 좋은 위치로 이어지는 몇 가지 경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감독에게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보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길이 총감독이 원하는 길과 달라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산마루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총감독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낭을 벗고 앉을 곳을 찾았습니다. 30분이 한 시간이 되고,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총감독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원들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총감독과 연락이 닿지 않자 배낭에 기대어 낮잠을 잤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총감독이 자신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서 불을 끄기 시작할 텐데 말입니다. 총감독은 호출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일에 몰두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총감독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등성이에 낙하하기



사진 촬영: © LAND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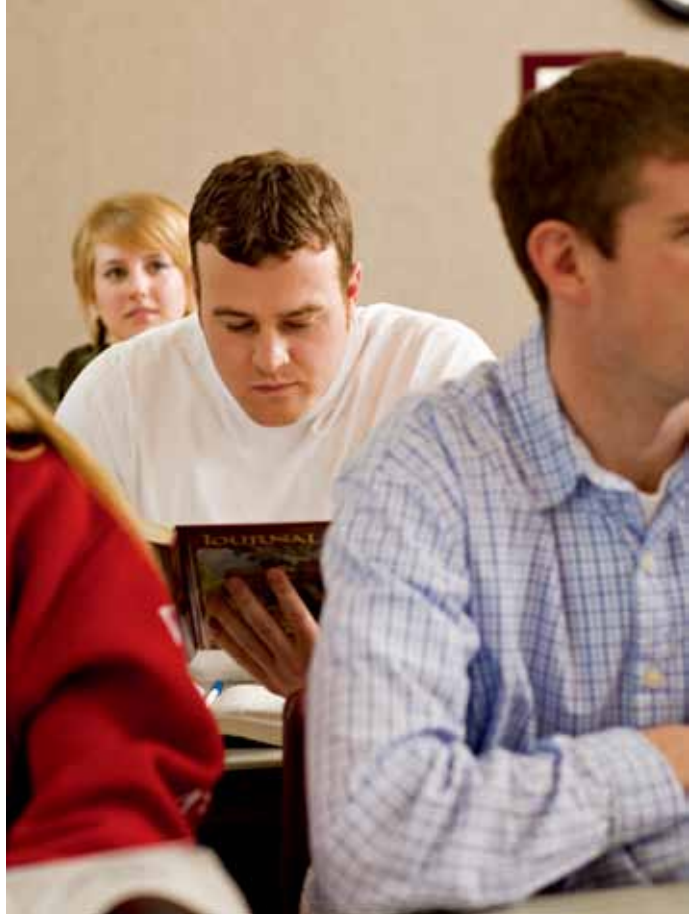
전에 그들은 지시를 주겠다는 약속을 그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산등성이에 도착한 지 일곱 시간이 지났을 무렵, 멀리 산 아래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해 오느라 녹초가 된 소방반장이 길을 오르다가 공중진화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입을 짝 벌여졌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진화대 대장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등성이에 모여서 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불을 막아 줄 사람이 없어서 불길을 거의 놓칠 뻔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동안 당신들은 이곳 산등성이에서 그저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말입니까?”

공중진화대 대장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소방반장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총감독에게 지시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시를 받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총감독은 그들을 무시하고 무전에 한 번도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난 곳으로 이어지는 몇몇 길을 보았지만 잘못된 길을 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약속대로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소방반장은 공중진화대가 사용했다는 작은 무전기를 집어 들고는 불이 난 곳으로 이어지는 길 중 하나로 45미터쯤 내려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총감독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방반장은 산마루로 올라갔다가 다시 다른 길로 45미터쯤 내려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총감독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그 즉시 총감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명확한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과 인도를 주시기를 잠자코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옵니다.



소방반장은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공중진화대 대장에게 무전기를 던져 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있는 곳은 난청 지역이군요. 저 길 중 하나로 내려가기 시작했더라면 총감독이 손쉽게 진로를 수정해 주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로 데려다 주었을 것ियो. 이곳에서 느긋하게 서 있으면서 아무짝에 쓸모 없는 사람들처럼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요.”

때때로 우리는 영적 인도와 지침이 필요할 때, 이 대원들과 똑같이 하고픈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환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발견하지만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감과 도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항상 그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점차 좌절감을 느끼며

약속받은 인도가 올 때까지 잠자코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늘 총감독께서 왜 우리의 진로를 알려 주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시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경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예지와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첫 번째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선택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수정된 진로를 받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실 때까지 그저 산등성이에 주저앉아 배낭에 몸을 기댄다면 영적으로 난청 지역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신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작은 수단으로

위해 우리에게 있는 빛과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 예지와 세속적인 예지를 계시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다만 그 예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일상 과정과 규칙, 규정을 따르는 가운데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과 계명은 귀중한 보호책입니다.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필요하다면 그 지시는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¹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명확한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과 인도를 주시기를 잡자코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중대한 결정이나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저는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예지와 자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활용하여 여러분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길을 열심히 걸으십시오.(교리와 성약 58:26~28 참조) 진로가 수정되어야 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로럴 퇴서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교사로 봉사했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직장도 잡았고, 혼자서 아파트로 이사도 했다.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참석하고 이따금 활동 모임에도 나갔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친구도 많았고 책 읽을 시간도 많아졌다. 독서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엘마서 37장에는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엘마는 41~42절에서 리하이 가족과 리아호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마는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을]” 때 리아호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 광야에서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나는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생활 속에서 신앙을 행사하거나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지 않았으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일을 중단했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한 순간에 목록을 만들고 내가 바뀌야 할 모든 것을 적음으로써 곧바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났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 직장 일을 더 잘하는 데, 또는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학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한 학교 프로그램을 찾아내었고 입학 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했다. 경전 공부와 기도 또한 더욱 중요해졌으며,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영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와드에 더 자주 참여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더 행복해졌으며, 내가 발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심을 느낀다. 나는 두려움이나 낙담보다는 희망으로 그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다. 나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신앙을 행사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그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발전하도록 도우실 수 없으며,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생활 속에 일어난 작은 변화에 감사하다. 그런 변화 덕분에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었다.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16쪽.

해답을 찾아서

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이 참석한 침례식에서 침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아 의식을 다시 집행해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 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침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침례는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하며 오직 침수로써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Bible Dictionary, “Baptism”)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을 나타내지만 우리 자신을 장사지내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로마서 6:3~6 참조) 다시 물에서 들려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분과 성약을 맺은 제자로 다시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침례탕 옆에 서 있는 두 증인은 침례 받는 사람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 즉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봅니다.

우리는 요단 강에서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신(마태복음 3:13~17 참조)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대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침수로써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성신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항상 영을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이 합당하지만 항상 영을 느끼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보혜사의 인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기를 배우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영의 인도와 확신과 평안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감지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9쪽)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잠시 고요히 있으면서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그러면 영의 영향력이 조용하고 평온한 확신으로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나 경전 공부 또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영을 불러들이는 일을 할 때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를 인식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고 그 속삭임에 따라 행할 때 그러한 조용하고 희미한 느낌을 분별하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2:36 참조) 생활 속에서 영의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회개와 기도, 경전 공부, 정신을 고양하는 기타 활동을 통해 영을 생활 속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

교회는 모든 비디오 게임에 반대하나요? 아니면 폭력물만 해당되나요?

전하고, 도전 정신을 일깨우며 재미있는 비디오 게임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게임 중에는 유쾌한 사교 활동이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비디오

게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게임을 할지, 그 게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60:13 참조) 단지 건전하고 재미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 방법 중 하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자리를 뜨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Be Strong in the Lord”, *Ensign*, 2004년 7월호,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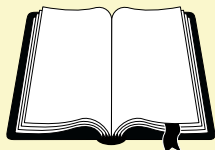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린 대중 매체 표준에 맞는 비디오 게임을 적정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정해 놓거나 아니면 언제든 컴퓨터를 끄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게임 때문에 운동, 복음 공부, 학교 숙제,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과 같은 보람 있는 활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허담 힘담

움기지 마십시오



우리들 공간



내가 좋아하는 성구

니파이후서 2장 11절

이 구절은 내가 의심이나 절망, 혹은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인도와 영감을 주었다. 나는 왜 반대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다. 왜 세상에는 모순이 존재할까? 인생은 그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수월하며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일까? 왜 나쁜 것들이 존재해야만 할까?

이 구절은 우리 삶과 인생의 복잡한 속성에 관해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그러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인생의 진정한 본질과 아름다움을 알 수 없고,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주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쉬나 피, 필리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권고는 주님이라는 등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더라도, 밤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강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치더라도, 길을 잃더라도, 등대이신 주님께서 구조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대이신 주님께서 인생이라는 폭풍우 사이를 뚫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빛을 발산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13쪽.



내가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찍은 이 사진은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어둠의 안개를 생각나게 한다.(니파이전서 8:22~24 참조)

케빈 케이, 독일

여러분

의 이야기,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성명, 와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및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나쁜 생각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더라도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안으로 들여 자리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유혹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가장 적절한 시점은 그러한 생각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할 때이다. 씨앗을 없애 버리면 식물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면 나는 나쁜 생각을 물리칠 때까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나쁜 생각을 완강하게 떨쳐 버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조지 지, 베네수엘라



8절에 답이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답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몇 절 뒤에서 답을 얻었다.

안젤리카 벨슨

밤 11시, 고등학교 친구 몇 명과 나갔다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나는 그날 밤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악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숙제를 펼쳤다. 너무 피곤해서 얼른 끝내 놓고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경전도 읽어야 하지만 오늘밤은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데 그때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몽땅 다 떠오르기 시작했다. 경전도 읽어야 하고, 새벽반 세미나리에도 참석해야 하고,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도 가야 하고,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 과외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끝이 없었다.

살아오는 내내 큰 부담감을 느꼈지만 우리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 여학생으로서 느끼는 중압감은 특히 더했다. 어쩌면 내가 친구들이 접하게 될 유일한 후기 성도 여성일 수도 있으니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느꼈다.

‘친구들처럼 그냥 속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파티에

가거나 나쁜 말을 입에 담아도 꺼림칙한 느낌이 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 때면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선택은 계속되었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무렵에야 숙제를 마쳤다. 다섯 시간만 있으면 자명종이 울어낼 것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미나리에 간 다음, 학교에서 또 다른 하루를 보내야겠지.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규율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도, 세미나리도, 상호 향상 모임도 안 가면 그만이다. 가족이 간다고 해서 나도 가야 하는 건 아니다.

모든 부담감을 날려 버리는 좋은 생각이었다.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거의 잠들 무렵, 경전을 읽으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만 잘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읽어 볼까?’

그 해 세미나리에서 우리는 신약을 공부했다. 나는 책갈피를 끼워 둔 야고보서 1장을 펼쳤다. 조셉 스미스는 이 장을 읽고서 영감을 받아 신성한

숲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생각하며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5절은 익숙한 구절이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8절에 다다랐을 때에야 눈이 열렸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읽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말은 후기 성도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계속 그렇게 생활한다면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정함이 없고 분명하지 않아서 몹시 불행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복음이 참되지 알아야 했다.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비록 때때로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야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한 시에 가까운 시각이었지만 나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무엇이 옳으며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손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혼란 속에서 나를 헤어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단순하고 명백하고 평화롭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알잖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네 시간 뒤에 자명종이 울렸다. 나는 잠결에 자명종을 껐다. 그리고 1분 후에 새벽반 세미나리를 비롯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밤중에 일어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몇 년이 흘렀다. 내 간증은 계속 자라고 있으며 종종 더 두터운 간증을 느낄 때도 있다. 이제 나는 진리를 알며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다는 점이 예전과는 다르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영광스러운 개척자 유산

우리는 모두 단호한 용기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낸 우리 선조들, 즉 초기 개척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겪은 고난

“1847년에 있었던 이 이동은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조직하고 이끄셨으며, 역사학자들은 이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질병, 굶주림, 또는 추위나 더위로 후기 성도 수백 명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차나 몇 마리의 말이나 소마저 없어서 손수레를 밀고 끌며, 말 그대로 2,000여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두 발로 걸어서 대평원을 가로지르고 산맥을 건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¹

신앙을 고취시키다

“우리는 모두 단호한 용기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낸 우리 선조들, 즉 초기 개척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개척자 길을 따라 손수레를 밀거나 끌거나 도보로 여행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개척자와 같은 삶을 사는 청소년과 어린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 가운데 초기 개척자들에 관한 기록에서 감명을 받지 않은 성도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²

고난에 대처하다

“먼지가 자욱했던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어느 개척자의 일지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드리며, 이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로 그분께 헌납했다.’

소년 시절에 그 허름한 집에 살았던 한 성도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창문도, 문도 없었습니다. 첫 겨울 동안 어머니는 낡은 누비 이불을 걸어 두셨는데 그것이 문을 대신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침실이었고 응접실이었으며, 거실이자 부엌이었으며 잠자는 방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3.5미터, 5미터 정도인 그 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늙은 어머니께서는 완성된 그 움집에 들어서시며, 어떤 여왕도 궁전에 들어서며 이보다 더한 행복을 느끼거나, 자신의 거처와 주님의 축복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기억납니다.’

초기 시대에 겪던 시련과 고난, 투쟁, 슬픔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한 용기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냈습니다.”³

우리 시대 개척자

“믿기지 않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이겨 내신 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름을 칭송하며 그분들이 감수한 희생을 가슴 속 깊이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개척자들과 같은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겪은 노고와 모범을 미래 세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볼까요? 진실로, 젊은이 여러분도 용기와 신앙, 사랑과 결심을 통해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기쁘다면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⁴

위부터: 사진 상화, 매튜 리이어, 존 루크, 유타 센터, 윌트우 크리 스티이크 제빙; 표정(아저, 만버버 타리크), 교회 역사 박물관 제빙



궁극적인 개척자

“경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궁극적인 개척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주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한 천사는 그분께서 인생이라는 무대로 입성하시리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주님의 삶과 성역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음 문장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사도행전 10:38)

주님께서서 말씀하신 사명,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베푸신 성역, 진리에 대한 가르침, 자비로운 손길, 우리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며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궁극적인 개척자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⁵ ■

주

1. “모두가 개척자”,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94쪽; 또한 *Tambuli*, 1988년 11월호, 2쪽 참조.
2. “우리의 자녀를 가르침”,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쪽.
3. *Ensign*, 1988년 7월호, 4쪽; 또한 *Tambuli*, 1988년 11월호, 3쪽 참조.
4. “모두가 개척자”,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94쪽.
5. “영적인 개척자들에 의해 인도됨”, *리아호나*, 2006년 8월호, 7-8쪽.

인도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다

찰스 큐위시 장로, 캐럴 큐위시 자매
아시아 지역 부부 선교사

20 09년 10월, 맹렬한 폭풍과 태풍이 인도 남부 지방을 초토화했을 때, 인도 하이데라바드 지방부 및 방갈로르 지방부 소속 청년과 청년 성인들은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 즉시 움직였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지방부 프라사다 구데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을 전달하는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기부받은 물품들이 피해 지역에 도착했지만 정부는 200곳이 넘는 대피소에 있는 희생자 수천 명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은 회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식량과 물을 효과적으로 배급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호 활동에 참여한 몇몇 청년과 청년 성인들은 봉사가 얼마나 즐겁고 성취감을 주는지 들려주었다. ■

오른쪽: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무척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친구들과 함께 포장하는 일도 즐거웠답니다. 사람들을 도우며 구주의 사랑과 평화를 느꼈습니다.”—비너스 암스트롱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가 일조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비살리 낙카

아래: 교회 회원 60명은 카르나타카 주 북부에 있는 대피소로 갔다. 이들은 교회 회원들이 모은 담요와 방수천과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한 청년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홍수 구제 활동에 참여하여 돕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진정한 후기 성도란 "이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혹은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자신이 만나는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남편을 잃은 사람을 보살피며, 고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26쪽)*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세계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개발 사업을 후원한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 사람들은 교회 복지 시설에서 763,737일에 달하는 봉사를 했다.
- 8,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복지 기구에서 봉사했다.

교회에서는 1985년부터 2010년 사이에 178개 국가에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쳤다.

- 아이티, 인도네시아, 칠레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모아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필리핀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재난 구호 활동을 벌였다.
- 아프리카에서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다.
- 1,030만 개에 달하는 위생용품, 신생아용품, 학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 61,000톤이 넘는 음식과 13,000톤이 넘는 의약품 그리고 89,000톤이 넘는 의복을 나누어 주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providentliving.org를 방문한다.



위: "봉사 활동을 다녀온 일을 대학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도 나누었어요.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며 무척 좋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준 교회 조직에 박수를 보냅니다."—디팩크 샤마

오른쪽: "홍수 구제 활동을 통해 봉사할 수 있어서 무척 뿌듯했어요. 저는 페인트칠을 하고 식량 꾸러미를 전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여러 신권 형제들과 그곳에 함께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었습니다."—아비나쉬 토마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이었다

표지에 금색 글씨가 적힌 책 한 권은 진리를 찾던 한 사람에게 보물이 되었다.

안드레이 보제노브

선교 사업을 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 날이었다. 동반자와 나는 새 구도자를 찾기를 바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리란 거리는 모두 걸어 다닌 터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둘 다 물문경을 건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물문경 안에다 모든 일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우리의 간증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 그분께 드렸다.

같은 날 저녁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리야라는 청년이 형과 함께 거리에 나와 있었다. 어슴푸레한 불빛이 비추는 지하도를 따라 걸던 일리야는 표지가 희미하게 금빛으로 반짝이는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자 책에 금색으로 새겨진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일리야는 책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 동반자와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구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우리는 새 구도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 우리 방식 중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도 몰라.'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왔다. "장로님 맞으신가요? 잃어버리신 책을 지하철 교차로에서 주웠어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 경전이 놓인 선반을 훑듯 보았다. "지하철에서 경전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확실히 물문경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책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청년은 자신의 이름은 일리야이며 원래 러시아 오르스크가 고향이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일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 책과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장로님을 만나 뵈 수 있을까요?"

나는 신이 나서 펄쩍 뛰어 올랐다. 구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교회에 대해 배우고 싶으니 약속을 잡아 달라고 하는 일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물론 만날 수 있죠, 일리야!" 나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일리야는 주의 깊게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는 일리야가 복음을 무척 잘 받아들여서 기뻐다.

토론 중에 나는 일리야의 물문경을 펴 보게 되었다. 책 앞부분에 언뜻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내 글씨였다! 나는 그것이 바로 전날 우리가 할아버지께 건넨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이 버린 책을 얼마 안 있어 일리야가 발견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 할아버지께 물문경을 건네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책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에 크게 감사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리야는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때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배웠다. 선교사와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이번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론경을 처음 받은 사람은 그 책의 가치를 몰라볼 테지만 일리야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니파이전서 19:7 참조) ■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며

열 두 살 난 모니카 새일리는 수영을 무척 좋아한다. 모니카는 뉴질랜드에서 손꼽히는 어린 수영 선수 중 한 명이다. 어찌면 모니카는 인어일지도 모른다.

인어라고 말하는 건 과장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다른 말로는 모니카 수영 실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모니카는 정말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이다.

모니카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새벽 5시에 두 시간씩 수영장에 나간다. 화, 목, 토요일에는 방과 후에 트랙을 달리거나 트랙 밖에서 장거리를 뛴다.

모니카가 가장 달갑지 않아 하는 수영 훈련은 턱을 꼳꼳이 세운 채 한 팔로만 하는 접영이다. 그렇게 100미터를 가면 팔을 바꿔 돌아오는 식으로 해야 한다.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모니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삶이 더 수월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 모니카는 힘든 일을 하면서 더 강해진다.

고된 노력과 힘든 시간

고된 훈련은 효과가 있었다. 모니카는 열 살 때부터 메달을 거머쥐기 시작했다. 열한 살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동년배들 중에서 접영 부문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열두 살에는 국가 대표팀과 함께하는 수영 영재 캠프에 선발되었고, 사모아에서 열린 오세아니아 게임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겨루도록 발탁되었다.

모니카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에는 고된 노력이 따르기 마련이란단. 그저 얻는 법은 없어.’”

모니카는 수영에도 그 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열한 살 생일을 맞이하고 몇 달 뒤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말이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아빠와 무척 가까웠어요. 아빠가 제게 수영을 소개해 주셨죠. 모든 연습과 경기에도 데려다 주셨고요. 아빠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함께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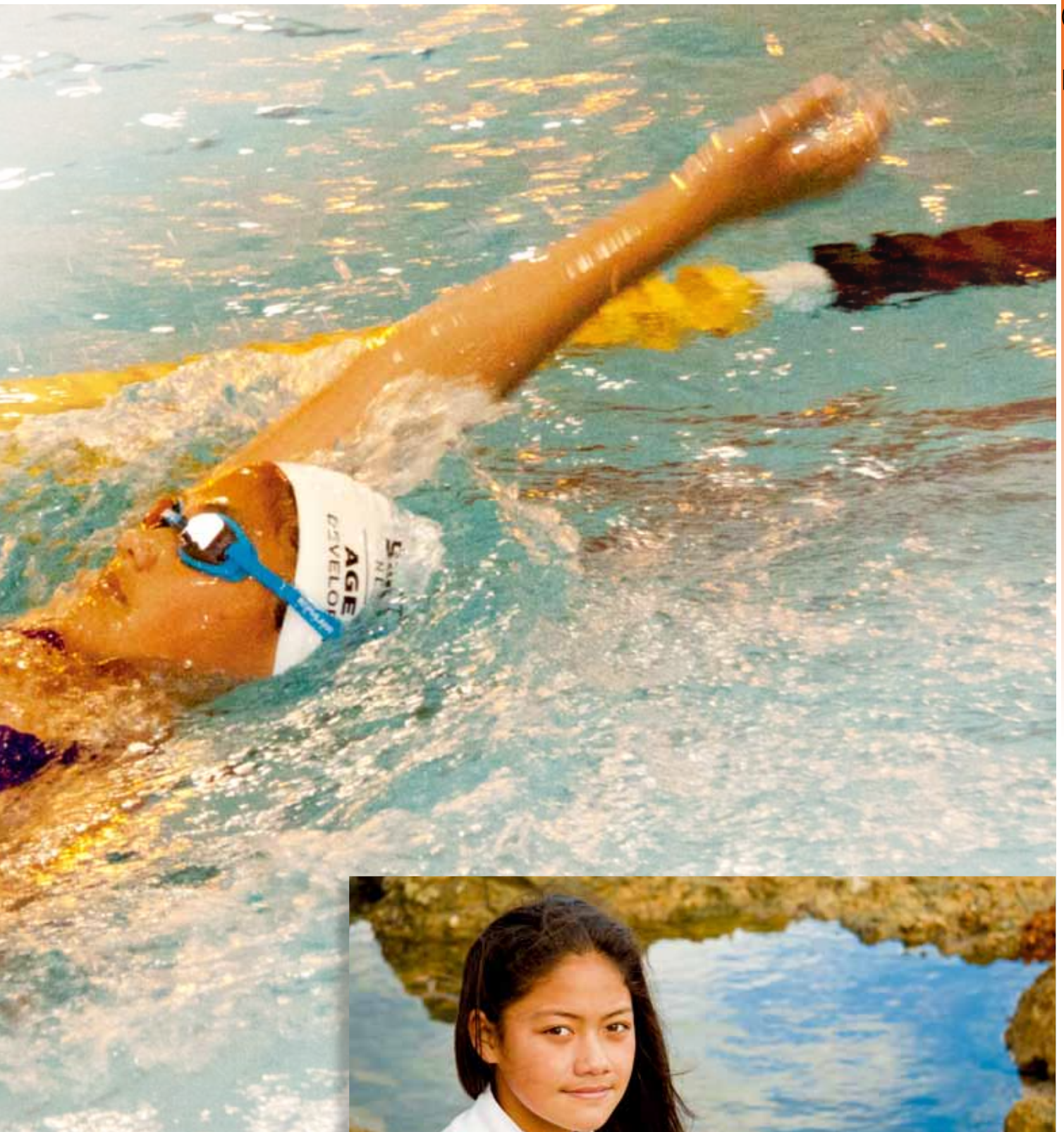
포기하지 말 것

아버지를 떠나 보내는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모니카는 어려운 훈련을 하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빠는 제가 따르고 싶은



사진 촬영: 에담 시울슨



모니카 새일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질 때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인생이 더 수월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름 속을 뚫고 나오는
햇빛을 찾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끝없는 진리 탐구”, 성도의 벗,
1986년 2~3월호, 10쪽.

모니카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 냈다. 그 과정에서
모니카는 힘든 일이 행복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본보기셨어요. 복음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모니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니카는 학교에서도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저는 교회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아요.” 또한 와드에서는 음악 책임자로 봉사한다.

“제가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축복이에요. 중압감이 심할 때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지요.”

마지막에 더 강하게

모니카는 아직도 아버지가 그리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모니카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교습, 학생회 모임, 수영, 개인

발전 프로그램, 성찬식 음악 지휘 등으로 바쁘게 생활한다.

아직 모니카는 수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수영을 할지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라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 한다.

모니카는 이렇게 말한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을 하며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야 하죠.” ■

이 이야기에 관해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liahona.lds.org에 접속한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비이기적인 봉사”,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3~96쪽에서 발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고귀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 온 인류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 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자녀들이 그분이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길에서 강력한 도움과 구조하는 손길을 내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봉사하시는 회원들도 자녀들을 이끄는 일을 도와줍니다. 한 자매님은 젊은 시절, 정의반 모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초등학교 본부 임원들 중 한 사람이셨는데, 그분은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워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은 자매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매님이 보여 주는



모범에서 성신을 느끼고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아내는 아들이 글 읽기 공부를 하도록 선생님 책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퇴근길에는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공부가 일찍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집에 가는 길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킬로미터쯤 갔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눈에 고인 눈물 때문에 길을 지나는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 무릎 꿇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덩불 저편에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젊은이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정의반 모토

아 이어링 회장님은 '의를 선택하라'라는 정의반 모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신 초등학교 교사 한 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토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린이들이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반지들에는 독일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된 정의반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그분께 돌아오는 길에서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고 구조하는 손길을 이 지상에 마련해 두셨다고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보내 주신 분들을 그림으로 그려 보거나, 그중 한 분에게 짧은 편지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
또는 교회 회원

부모 또는
가족 중 한 명



교사

부모 또는
가족 중 한 명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니?” 하고 물었고, 아들은 길을 잃었으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집전화나 주소를 아는지 물었지만 저희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들을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전화번호부에서 저희 가족의 성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데리러 가면서 저는 아들이 집으로 오는 길목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한 그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교회에서 영감 받은 지시를 따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거하시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이 공과와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조앤 차일드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 거야”라는 가사가 떠오르지 않나요?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부를 때면 종종 어린이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하지만, 성전이 왜 있는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성전에 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전은 왜 있나요?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으라.”(교리와 성약 124: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분의 성전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또는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은 침례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두 살이 되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전에서는 또한 엔다우먼트, 즉 은사를 받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합당한 생활을 계속하면 그 결혼이 영원할 것이며, 자녀와 함께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권

또는 권세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열두 살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은 여러분을 접견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확인한 다음, 성전에서 보여 주어야 하는 성전 추천서를 주실 것입니다. 추천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머물면, 성전에 가서 “성령을 느끼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사랑이 넘치는 곳”²입니다. ■

주

1.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2. “나 성전 보고 싶어”, 99쪽.



활동

두 그림을 보세요. 어느 가족이 성전 일반 공개에 갈 준비가 되었나요? (1) 첫 번째 그림에서 가족이 성전을 방문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2) 두 번째 그림에서 가족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바꾸어야 할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3) 여러분이 자라서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내용을 그림 아래에 적어 보세요.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할 한 가지 일은 _____입니다.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할 또 다른 일은 _____입니다.

타히티에서 열린 개척자의 날

마리아 티 무디

타히티 파페에테 스테이크 어린이들은 개척자들을 사랑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1847년에 솔트레이크밸리로 여행한 개척자들을 기리는, 스테이크 개척자의 날 활동을 하려고 부모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각 와드에서는 개척자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몇몇 와드에서는 자전거 바퀴로 마차 바퀴를 만들었고, 한 와드에서는 판지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행렬 행진을 하고, 개척자 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개척자의 날은 또한 각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이바지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 개척자입니다. ■



이 가족은 모자와 앞치마와 멜빵을 똑같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소년은 행렬에서 지붕이 있는 와드 마차를 끌었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치마차림에 개척자 모자를 썼습니다.

어떤 소년들은 모자를 쓰고 큰 손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우리들 이야기



페루에 사는 다섯 살 난 마르시아 브이는 부모님인 파트리시아와 라울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마르시아는 초등학교 정의반으로, 정의반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마르시아는 리아호나에 나오는 그림에 색칠하기를 좋아하며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르시아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돕는 일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칠판 지우시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바이올린을 켤 줄 알며, 가정의 밤을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르시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일 오, 10세, 페루

여러분의 그림이나 사진, 경험, 간증,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제출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 그리고 어린이의 사진과 제출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세요.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구일러모 티, 8세, 베네수엘라



사라 디, 6세, 브라질

영원한 가족

우리 가족은 2008년 8월 23일에 유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 받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 그곳까지 갔는데 정말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타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성전을 보러 갔습니다. 밤에 보는 성전은 건물을 비추는 모든 불빛과 어우러져서 정말이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이를 뒤에 우리는 인봉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매님들께서 저와 여동생이 흰 옷을 입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봉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딘 에프, 5세, 스리랑카



부름

코린 류
개척자 존 칼링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짓되 이 곳에 지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충실함을 너희가 내게
입증하며”(교리와 성약 124:55)

“아 이작, 아이작.”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서 아버지가
찾으신다.”

아이작은 고개를 들어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일을 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작은 침대에서 비틀비틀 빠져
나와 셔츠에 손을 뻗었습니다. 황소들이 으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문 밖으로 나오자 아빠가 늙은 토리스를
문밖으로 데려 나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아빠?”

“울타리로 가려는 것뿐이란다. 토리스가 얌전히
있게 곡물이 담긴 들통을 좀 붙잡아 주렴.”

황소가 내는 우렁찬 소리는 마치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지만 아이작이 코 밑에 들통을
들이대자 토리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 혀로
곡식을 훑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먹이를
먹는 동안 아빠는 고삐 줄을 울타리에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엄마가 앞문으로 걸어 나오시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에멀린,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책상에서 목수용 연필을 좀
가져다 주겠소?”

엄마가 연필을 가져오시자 아빠는 판자 몇
개를 바닥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토리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더니 매끈한 노란 목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이작이 물었습니다.

“포드햄 형제님과 함께 성전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받았단다. 형제님과 나는 침례반을 받치는
열두 마리 황소상을 제작하는 일을 도울 거야.
그래서 도안을 그리는 중인데 우리 집 토리스가

아빠의 모델이란다.”

자기 이름을 들은 토리스는 머리를 잠시
드는가 싶더니 다시 곡식을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이작은 길고 두꺼운 선을 그리시는 아빠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토리스를
닮아가는 걸요. 그런데 왜 토리스를 모델로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토리스는 강한 테다가 내가 본
황소 중 가장 훌륭한 황소이기 때문이지. 저
서 있는 모습 좀 보아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는 것 같지 않니? 게다가 토리스는
순종적이란다.”

“이 일은 무척 특별한 부름이네요, 아빠.
그렇죠?”

“그렇단다, 아이작.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아빠는 감사하단다.”

아이작은 토리스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황소의 강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에
모델이 되다니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니, 토리스.”

아이작은 집안일을 재빨리 끝냈습니다. 나무로
된 빨래집게 스물네 개를 만드는 일도 평소보다
더 빨리 해치웠습니다. 그 일을 끝내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작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불에 탄 장작에서 나온 숯 조각으로
벽난로 근처에 그림을 그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숯은 잘 지워졌기 때문에 아이작은 두꺼운 선이나
가는 선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토리스를 그리며 아빠와 나무에
세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작이 토리스처럼 강하고 순종적이라면
주님께서는 아빠를 택하신 것처럼 아이작도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





“**재**능을 나누십시오.
기꺼이 재능을 나눌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상호부조회의 정신”,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100쪽.

상화: 짐 메드슨



영원히 함께 하다

레베카 코니쉬 톨리
실화에 근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제3니파이 25:6)

1. 올리비아네 집과 가까운 곳에 성전이 헌납될 것입니다. 헌납 전에 누구나 성전을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올리비아는 할머니께 그날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이 방에서 인봉 의식이 집행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서서 건너편
거울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처럼요, 그렇지요?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
받았으니가 계명은 지킨다면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온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단다.



5. 올리비아와 할머니는 안내인을 따라서 해의
왕국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참 좋은
느낌이 들어요.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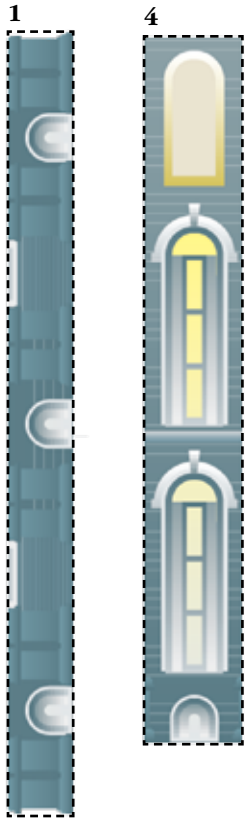
나도 그렇게
느낀단다.

6.

할머니, 전 성전이 정말 좋아요. 언젠가
저도 크면 여기에 와서 결혼할 거예요.
할아버지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단니 정말 기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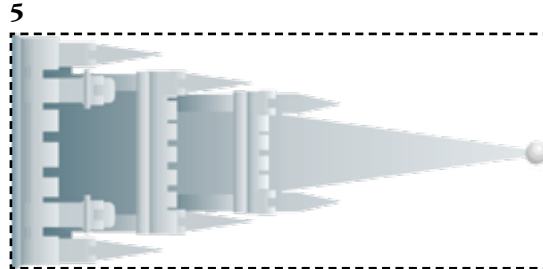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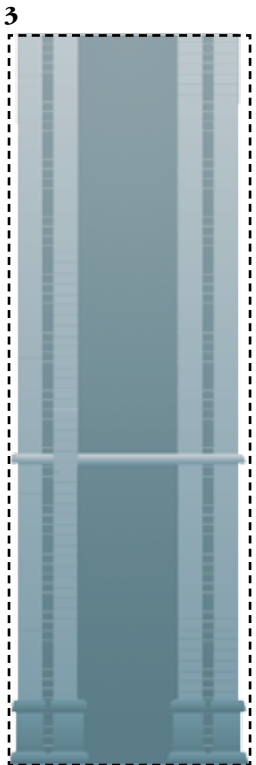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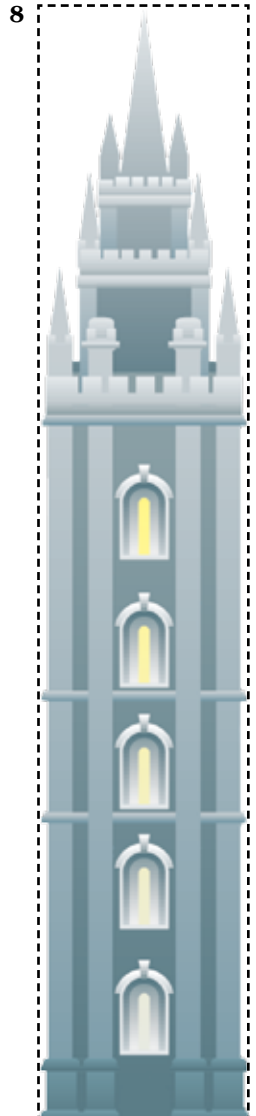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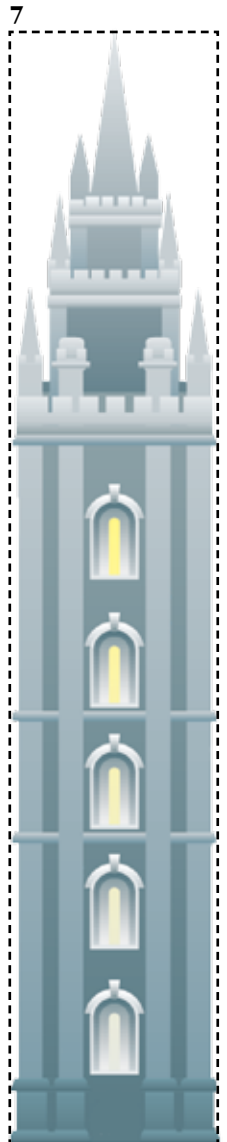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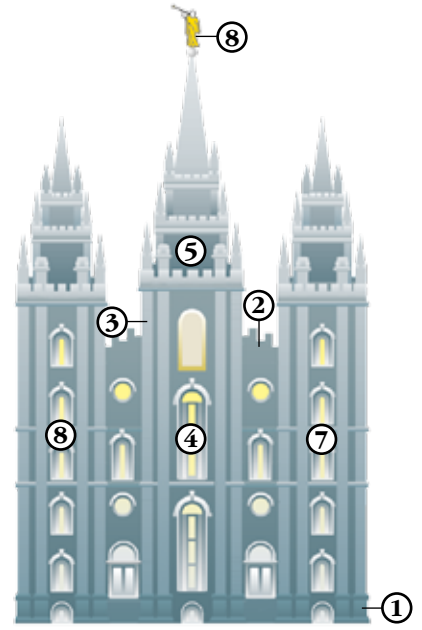
아무렴, 그렇고말고. 성전이
있고, 이런 날 이곳에 와 보니
정말 좋구나, 그리고 너에게 참
고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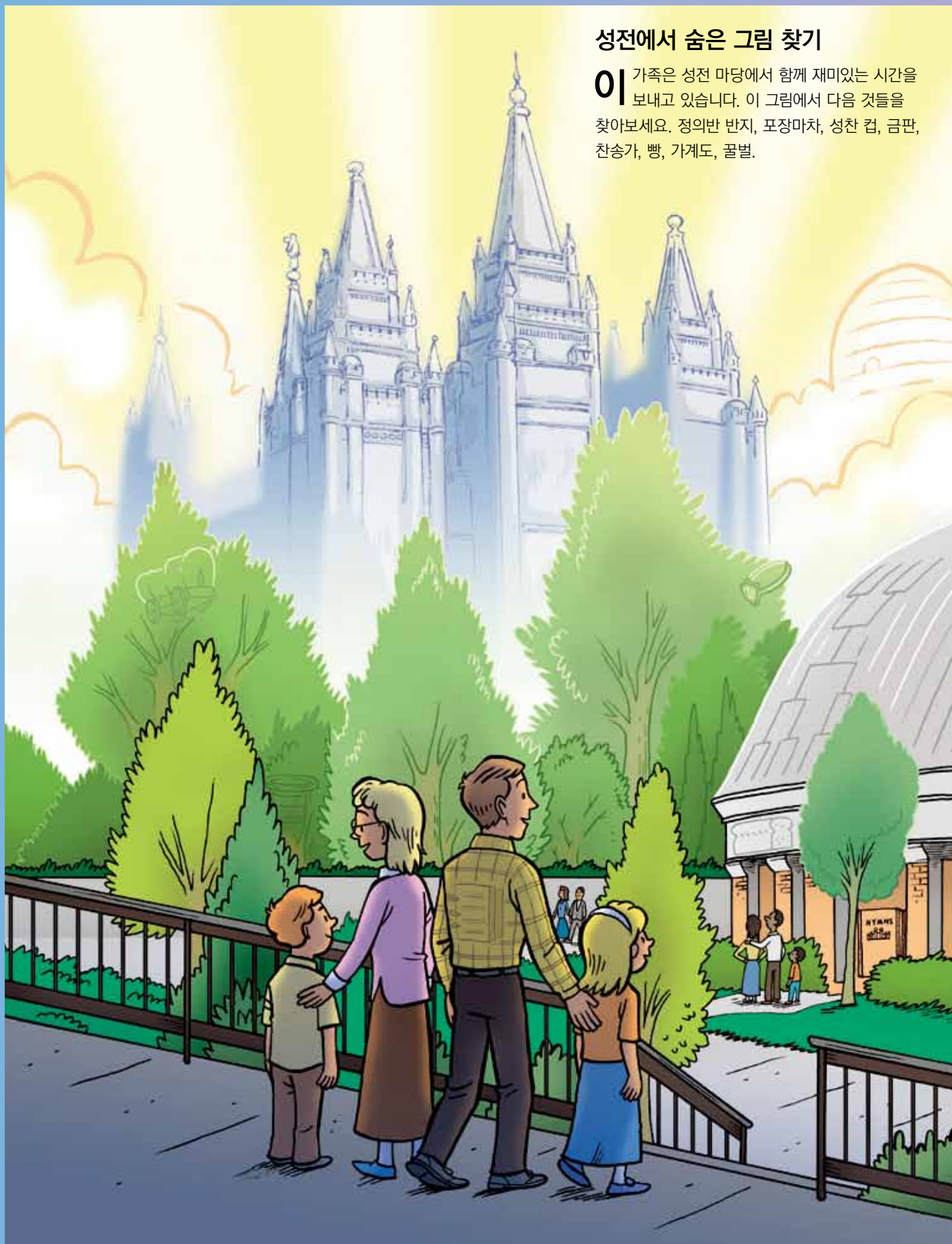
성전 만들기

솔 트레이크밸리에 정착한 초기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짓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어른의 도움을 받아 성전 각 부분을 오린 다음, 이어 맞추어 성전을 만들어 보세요.



성전에서 숨은 그림 찾기

이 가족은 성전 마당에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음 것들을 찾아보세요. 정의반 반지, 포장마차, 성찬 컵, 금판, 찬송가, 빵, 가계도, 꿀벌.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카드

이 카드들을 잘라내어 사용하면 연차 대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대인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는 사소한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선택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헌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에게 대해 더 배우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엠 러셀 블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이 속삭이는 소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디이터 예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삶에서 치르는 시험을 참고 견디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 이 시기에 이렇게 지상에 왔습니다. ……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자 손을 뻗고 계십니다. 지금은 위대한 기회와 중요한 책임들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 혼자가 아닙니다. ……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성신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것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교회 소식

이 시대 개척자들의 역사를 찾습니다

히카리 로프터스
교회 잡지

교회 회원들은 개척자를 생각할 때면 보통 19세기에 배를 타거나 걸어서 미국 서부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상상한다.

척박한 영역을 일구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정착 자산이 이 시대의 개척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척자들의 역사를 찾고 있다. 역사부는 제출되는 모든 개인 역사 자료를 받지만 개종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거나 세워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새로 조직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후기 성도가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살면서도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자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각별하다.

교회 역사부 수집 책임자인 브래드 웨스트우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개인 역사 자료는 같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같은 지역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역사 자료란 전 생애가 담긴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선교 사업과 관련한 추억, 부모로서 겪은 일, 전환점이 된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이야기 등과 같은 단편 역사도 포함한다고 웨스트우드 형제는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모두에게는 저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시험을 겪기 때문입니다. 역사 자료는 간증을 쌓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100년이 흐른 후에 가문에 전해 내려온 가족 역사가 없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남긴 역사 자료를 읽으면서 “개종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친척이나 다른 개척자들에 관해,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배운 교훈, 지혜에 대해 배우면서 자기

news.lds.org에 접속하면 조셉 밀렛의 일생을 다룬 단편 영화를 영어 대사로 볼 수 있다. 신앙을 강화하는 이야기인 이 영화 역시 개인 역사 자료가 보존되었기에 제작될 수 있었다.



다움
조셉 밀렛의 영화 중 한 장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권고와 도움을 발견할 것이다.

도서관에 제출된 역사 자료는 분류 작업을 거치며 방문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것이다. 원고나 도서들은 장기 보존을 위해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교회 역사 도서관에 소장된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개인 역사 자료를 교회 역사 도서관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전했다.

공개해도 무방하도록 기록한다. 일기와 일지는 훌륭한 역사 자료 출처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일반에게 공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상 사건이나 개인의 생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다. 만일 역사 자료에 다른 사람의 명성에 해가 될 내용이 있다면 도서관측에서 접수는 하겠지만 공개 전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기록한다.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든 생애를 다루려다 제풀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번에 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교 사업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본다. 그것이 다 끝나면 인생의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주요 자료를 활용한다. 편지가 있다면 옮겨 적거나 책 속에 끼워 놓는다. 사진도 있다면 포함시킨다. 특정 도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한 경우, 그 출처를 기록해 둔다. 스크랩책도 개인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스크랩책을 만들 때 사진에 담긴 사건에 관한 설명이나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스크랩한 사진과 관련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적어 두도록 제언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인터뷰한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이렇게 설명했다. “대개 우리는 개인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술하지만 다른 관점이 많이 더해질수록 개인 역사는 훨씬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더한다면 개인 역사에 새로운 시각이 더해지고 여러분은 더 훌륭한 개인 역사 자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경험과 삶의 전환점, 중요한 요소와 사람과 사건에 관해 기록한다. “사람들은 잘 다듬어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고 웨스트우드 형제는 말했다. 기승전결에 따라 경험을 기록한다. “2살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데 60쪽이나 할애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테지만 그렇게 적는다 하더라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인 관심을 쏟은 것에 대해 기록한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연대순으로 적기보다는

관심있는 주제나 화제거리를 중심으로 적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역사 자료나 가족 역사 자료를 교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웨스트우드 형제는 시간을 내어 어려울 때나 좋을 때에 관해 솔직하게 적으며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이 그들 삶에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가족과 다른 교회 회원들을 강화시킬 유산과 추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척자이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교회 역사부로 여러분의 역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역사 자료는 다음 주소로 보낸다. Church History Library, 15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1600, USA, Attention: Acquisitions.

방문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ChurchHistoryAcquisitions@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교회 역사 자료 접수처(1-801-240-5696)로 전화할 수 있다. ■



© 2006 DAVID STOKER

개인 역사 자료는 사람들이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온 세상에

페리 장로는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저는 이 교회 청년 성인들에게서 강렬한 영적 힘을 보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2011년 3월 6일에 방송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을 압니다.”

페리 장로는 젊은이들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네 가지 일을 가르쳤다. 바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지고, 매일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날을 위해 예비하신 세대입니다. ……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institut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시청할 수 있다. “CES Firesides”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언어를 찾아 본다.

복음은 기쁨을 줍니다, 쿡 장로가 아시아 성도들에게 말씀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2011년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쿡 장로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쿡 장로는 우리 모두가 구하는 기쁨과 행복, 평안을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다시 일깨워 주었다.

쿡 장로는 또한 여러 신문사 언론인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한국 대전 선교부를 방문한 쿡 장로는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질문에 답했으며, 한국 대전 선교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권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다.

방문 일정은 한국 청주 스테이크 대회 참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도가 청주 스테이크를 방문한



사진 촬영 진건우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우리가 구하는 기쁨과 평안을 복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news.lds.org에서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다.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쿡 장로는 일본 고베에서 신권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후, 일본 오카야마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도쿄에서는 메이지신궁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베트남도 잠시 방문했다.

법률은 우리 잠재력을 실현하게 합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말씀하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간 관계와 행동을 다스릴 법과 법률 체계를 세우도록 기회와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월 4일에 열린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회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한 사람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온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서 법률이 하는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궁극적인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가장 훌륭한 선행은 그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물려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구주의 권능에 대해 간증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으로 연설을 마쳤다.

또한 노변의 모임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법률 분야에서 일군 공로를 인정 받아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회에서 주는 상을 수상했다.

백 자매, 하나님의 계획에서 상호부조회 자매의 역할을 강조하다

본부 상호부조회 줄리 비 백 회장은 2011년 2월 26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교정에서 10,000여 명에 이르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신앙을 강화하고 상호부조회와 구원의 계획에서 자매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백 자매는 총회와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미국 아이다호 주 남동부에 있는 40개 이상의 스테이크에서 온 여성들과 신권 지도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었다.

백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에 주님의 목적을 간직하고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나갈 때 축복을 받고 강화되며, 정결하게 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간증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분의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 세우신 단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news.lds.org에서 백 자매가 전한 말씀을 더 읽어보고, 관련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비디오와 말씀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

교회 이모저모

자립을 돕는 재봉틀

2010년에 교회에서 재봉틀 50대를 피지 사회복지부에 기증했고, 추가로 50대를 더 기증할 예정이다. 이로써 피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자립하고 취업할 기회가 늘고 있다.

교회 회원들이 기증하는 인도주의 기금으로 교회는 전세계 곳곳에서 재봉틀 기증과 같은 프로젝트를 펼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교회 대표자들은 마을 및 정부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존중하여 도움을 건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이 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는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는 피지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전세계 곳곳에서 선을 행합니다.”

표창을 받은 일본 회원

일본에서 최악의 지진이 있기 6년 전인 2010년 11월 9일, 일본 후지사와 스테이크 회원인 요지 수기야마 형제가 조국에 대한 모범적인 봉사를 표창하는 서보중완장(Order of the Sacred Treasure)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외무성에서

일해온 수기야마 형제는 일본을 대표해 조약을 협상하고 외교사절로 일하는 것에 깊이 참여해왔다.

수기야마 형제는 우리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주님께서서

기회를 주신다는 점을 배웠다.

수기야마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도록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기회가 없으면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에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어 콜레라나 설사병,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에 자주 감염된다. 2002년 이후로 교회에서는 5,000곳이 넘는 지역 사회에,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news.lds.org에서 영어로 제공된 Water Is Happiness(물이 행복입니다) 비디오에서는 후기 성도 자선회가 시에라리온에 있는 한 마을에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펼친 활약상을 볼 수 있다. ■



세계 단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개정 출판

교회 교육 기구에서는 컬러로 구성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교재를 새로이 출판했다. 새롭게 마련된 이 교재는 현대 선지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제일회장단 승계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교재는 store.lds.org 또는 미국 전역에 있는 배부 센터에서 살 수 있다. 교재는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 출판되어 있으며, 다른 언어로도 번역 중이다.

교회에서 범종교 축전을 주최하다

여러 종교 전통에 따른 노래와 춤, 성구, 기도로 구성된 범종교 음악 축전이 2011년 2월 20일 일요일에 템플스퀘어 태버나클에서 열렸다.

지역 내 유대교 회당, 기독교



범종교 음악 축전은 2002년 동계 올림픽 때 처음 시작되어 매년 2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예배당, 힌두 성전, 여타 장소에서 여러 행사들이 일요일 음악회에 앞서 열렸으며 유타 지역 사회의 종교적 전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애독자 편지

구주 위에 세워진 가정과 결혼

남편과 저는 가정의 밤 시간에 리아호나를 봅니다. 그 시간에 저희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희는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감어린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과 결혼 생활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집니다.

디나벨 젤라야, 온두라스

슬픔 속에서 느끼는 행복

리아호나에 담긴 메시지는 용기를 내도록 정말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더 그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제가 이 위대한 사업에 속해 있고, 생활에서 복음을 통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끝까지 견디면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파트리시아 올리베이라 데 소우자 발레나 레알, 브라질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42쪽: 누군가 여러분에게 움직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공과 중 일부로 ‘사이먼 가라사대’ 놀이를 해본다.(놀이를 하려면, 술래가 “사이먼 가라사대 ……”라고 말한 다음,



함께 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손을 드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한다. 몇 차례 이렇게 한 후에 “사이먼 가라사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도해 본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사이먼 가라사대 손을 들어요. 사이먼 가라사대 손뼉을 쳐요. 발을 굴러요.”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갔던 경험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8절에 답이 있었다”, 50쪽: 이 기사를 함께 읽고 나서 야고보서 1장 8절을 읽는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토론한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을 수도 있다. 이 기사에서 선택과 소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안젤리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경전 공부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부름”, 68쪽: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식구들의 재능이 봉사와 교회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해 볼 것을 고려해본다. 재능이나 기술을 배우거나 향상시키겠다고 결심한다. ■

올해 난 건 잡초일 뿐이야. 뽑아내거라

몽 포울센

나는 미국 유타 주 리하이에서 자랐다. 우리 집에는 옥수수와 감자를 매년 번갈아 가며 심는 정원이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감자 주변에 난 잡초를 뽑으시며 내게는 옥수수 주위에 난 잡초를 뽑으라고 하셨다. 일렬로 늘어진 15센티미터짜리 옥수수 주위에 난 잡초를 쪽 뽑아 내려 가는데 홀로 자라고 있는 감자 모종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풀을 뽑고 계신 쪽에서 자라는 어떤 감자 모종보다도 더 크고 멋지게 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소리쳐 물었다. “이건 어떡하죠?” 아버지는 거의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씀하셨다. “뽑아내거라.”

내가 감자 모종을 두고 말한다는 걸 모르실 거라고 짐작하며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잡초가 아니에요. 감자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도 들지 않으신 채 말씀하셨다. “때가 아니란다. 올해 난 건 잡초일 뿐이야. 뽑아내거라.” 그래서 나는 결국 감자 모종을 뽑아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담긴 지혜를 종종 깊이 생각해 보았다. 순종은 단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생 동안 내게 바라시는 모든 일을 놓고 볼 때, 그 일들을 적기에 하는 것은 그 일들을 모두 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생 동안 내게 바라시는 모든 일을 놓고 볼 때, 그 일들을 적기에 하는 것은 그 일들을 모두 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선교 사업을 하고, 이성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받고, 전업으로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이 훌륭한 일들을 순서를 뒤바꿔 하게 되면 종종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

베냐민 왕은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모사이야서 4:27)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2)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앙에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일도 포함된다.”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사탄이 옳은 일들을 잘못된 순서로 행하도록 꾀으로써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한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열여섯 살이 되기 전에 이성 교제를 하거나 부모가 된 후에 결혼을 하는 일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절충하거나 더럽힌다면 그 계명들은 제철도 아닌데 자라난 식물, 즉 잡초가 되어 버린다. 옳은 일을 잘못된 시기에 하고 합리화하려는 유혹이 들 때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중요한 교훈에 감사드리게 된다. “때가 아니란다. 올해 난 건 잡초일 뿐이야. 뽑아내거라.”

주
1. 닐 에이 맥스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88쪽.